

국가직 9급 접수 “눈치싸움 재현되나”

채용공고 발표 후 경찰청·고용노동 접수 두고 수험생 의견 분분

【 2017~2020년 국가직 9급 경찰청·고용노동·교정(남)·세무직 채용 현황 】				
구분	경찰청	고용노동	교정(남)	세무직
2020년 신규채용	409명	409명	554명	652명
('17~'19년) 선발인원	344명 ('19년 첫 시행)	168명 → 520명 → 273명	910명 → 507명 → 219명	1천15명 → 878명 → 855명
('17~'19년) 경쟁률	46.2대 1	32.5대 1 → 36.2대 1 → 22.4대 1	16.2대 1 → 21.4대 1 → 31.9대 1	33.4대 1 → 26.4대 1 → 22.6대 1
('17~'19년) 합격선	404.09점	392.95점 → 349.82점 → 388.88점	346.96점 → 321점 → 379.04점	382.52점 → 343.59 → 387.19점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4천985명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 채용인원 4천987명과 비슷한 수준이나 각 직렬별 채용인원 증감이 커 원서접수를 앞두고 수험생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2월15일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원서접수를 실시 할 예정이다.

수험 관계자는 “설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국가직 9급 공무원 원서접수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며 “전년대비 채용인원이 증가한 직렬 접수를 두고 수험생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경찰청·고용노동·교정(남) 출원인원 집중되나?

전년대비 채용인원이 늘어난 대표적인 직렬은 경찰청, 고용노동, 교정직(남)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344명 선발에서 올해 409명으로 늘었고 고용노동은 2019년 273명 채용에서 409명으로 선발인원이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교정직(남) 채용인원 역시 지난해 219명 선발에서 올해 554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채용인원 발표 후 수험생들은 각 직렬별 선발인원, 예년 경쟁률 및 합격선 등을 비교하며 올해 경쟁률 현황을 예측하는 모습이다.

국가직 9급 공무원 경찰직 2019년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344명 선발에 1만5천894명이 지원해 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직 9급 공무원 평균 경쟁률 39.2대 1보다도 높은 것이다.

국가직 9급 필기시험 응시율은 85.6%를 기록했으며 합격선은 404.09점으로 나타났다.

수험 관계자는 “국가직 9급 경찰직은 2019년 첫 채용을 실시해 수험생들의 많은 관심이 모아졌었다. 올해 시험에서는 선발인원이 늘어난 만큼 경쟁률과 합격선 증감 여부에 어떠한 변화가 보일지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9년 국가직 9급 고용노동은 273명 선발에 6천120명이 출원해 22.4대 1의 경

쟁률을 기록했다.

예년 경쟁률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2.5대 1(168명 선발)→▲2018년 36.2대 1(520명 선발)→▲2019년 22.4대 1(273명 선발)의 변화를 보였다.

필기시험 합격선은 ▲2017년 392.95점→▲2018년 349.82점→▲2019년 388.88점을 각각 기록했다.

수험 관계자는 “2020년 국가직 9급 공무원 고용노동 채용인원이 201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수험생들의 관심도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교정직(남) 경쟁률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6.2대 1(910명 선발)→▲2018년 21.4대 1(507명 선발)→▲2019년 31.9대 1(219명 선발)의 변화를 보였다.

국가직 9급 교정직(남) 필기시험 합격선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346.96점→▲2018년 321점→▲2019년 379.04점이었다.

세무직 채용인원 하락세 뚜렷

이와 대조적으로 올해 국가직 9급 일반행정 전국선발, 우정사업본부, 세무직, 검찰직 등은 전년대비 채용인원이 감소했다.

그간 세무직 9급은 대규모 채용을 실시해 수험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었다.

선발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천15명→▲2018년 878명 선발→▲2019년 855명 선발을 각각 기록했다.

경쟁률은 ▲2017년 33.4대 1 →▲2018년 26.4대 1→▲2019년 22.6대 1로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세무직 9급 필기시험 합격선은 ▲2017년 382.52점 →▲2018년 343.59→▲2019년 387.19점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이
당신의 합격을
지원합니다!**



모르는 것을 보완·확인해주는
확인학습 AiPen

PMG 박문각

2020 해피 합격 스타트

**박문각공무원
스파르타**

1월 개강반

최대 592만원 할인
더 큰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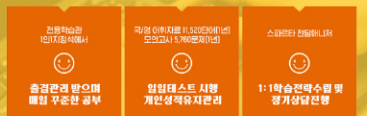
일일/주간/월간 테스트
더 쎈 관리!

www.pmg.co.kr PMG 박문각공무원

집중과 자기 통제의 공간
“공부습관을 잡아야 한다”

**스파르타
PRIMEPASS**

노량진학습관



다음호 고시기획 신문은 1월30일(목) 발행됩니다.

- 명칭 : (주)에듀스파르타 고시기획신문사
- 등록연월일 : 2014년11월1일
- 제호 : 고시기획
- 간별 : 주간(매주 목요일)
- 인쇄인 : 정희택
- 발행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71
- 대표번호 : 02-824-8385

BOOK info

합격하는
박문각공무원
실전예상문제

김세현 영어
단원별 실전 400제

김세현 편저 / 15,000원

202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합격하는 박문각 공무원 실전예상문제

김세현 영어 단원별 실전 400제 **출간**

적중도 높은 새로운 문제로 업그레이드된 2020 전면개정판!

- 문법, 독해, 어휘, 생활영어 4개 영역별로 단원 구성
- 총 23개 챕터로 나누어 다양하고 참신한 실전 예상 문제 정선
- 출제 경향에 최적화된 [출제 유형 분석]과 [필수 기출 분석] 제시
- 해설편에 명쾌한 해설 제시하고 문제 재수록하여 복습 효과 배가

PMG 박문각

박 문 각 공 무 원

합격을 부르는 박문각 AI 확인학습

인공지능이 반영된 박문각 확인학습 시스템으로
빠르게 합격 하세요!



제2차 시험 마무리 수순 ... 교원임용 발표일은?

최종합격자 명단 발표일, 초등 1월30일·중등 2월7일 예정

2020학년도 교원임용 신규채용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우선 유·초·특수교원 채용은 지난 10일 제2차 시험을 마무리한 뒤 최종 합격자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2020학년도 유·초·특수교원

최종 합격자 명단은 1월30일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2020학년도 중등교원 채용은 1월22일까지 제2차 시험을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 명단 발표일은 2월7일이다.

참고로 2020학년도 유·초·특수교원 선발예정인원은 총 3천916명으로 2019년 채용보다 116명 감소했다.

2020학년도 중등교원 채용에 예정인원은 총 6천82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박문각 중개사 올해 시험대비

‘전국투어’ 설명회 실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최근 전 연령대에 걸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자격증 중 하나다.

수험전문가는 “시험 준비 돌입 전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과목별 학습방법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박문각 공인중개사는 시험 준비를 시작하는 수험생들에게 최적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설명회 구성은 ▲1부 공인중개사 시험 제대로 알고 도전하자! ▲2부 박문각이 제시하는 최단거리와 최적의 길! ▲3부 더 이상의 완벽함도 없다! 남은 금강증 전격 해결!로 진행된다.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 기출경향 파악, 수험 학습관리 방법 및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맞춤 컨설팅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문각 공무원 합격전략 설명회 1월18일 실시



박문각 공무원노량진 학원은 2020년 공무원 시험대비 합격전략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합격전략 설명회는 ‘제도를 알면 합격이 보인다’를 주제로 2020년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시험대비 전략적 준비방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합격전략 설명회는 1월18일 오후 2시 남부 본원 301호에서 진행

된다.

설명회 사전 예약은 박문각공무원노량진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참고로 이번 합격전략 설명회 예약자들에게는 주간 학습 플래너, 순공플래너가 증정되며 추첨을 통해 7·9급 종합반 실강 수강권이 증정된다.

박문각 공인중개사는 2020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합격전략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투어 일정으로 진행되며 각 지역별 설명회 일정은 ▲부산 1월16일 ▲대전 1월17일 ▲서울 1월31일이다.

농촌진흥청 공무원 41명 선발

농촌진흥청은 2020년도 연구직·지도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농촌진흥청의 올해 선발예정인원(일반)은 ▲연구사 38명 ▲지도사는 3명이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연구사 직렬의 선발예정인원은 3명 더 증가하였다.

연구사 농업연구 직렬의 38명 선발예정인원을 직렬별(일반) 선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물 9명 ▲농업환경 5명 ▲작물보호 3명 ▲잡업곤충 2명 ▲생명유전 4명 ▲농식품개발 2명 ▲원에 5명 ▲축산 5명 ▲농공 2명이다.

농촌지도사는 농업 직렬에서 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020년도 농촌진흥청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시험일정을 살펴보면 ▲원서접수 2월17~21일 ▲필기시험 장소 공고 4월9일 ▲시험일 4월18일 ▲합격자 발표 5월12일 ▲면접시험 5월27일 ▲합격자발표 6월5일이다.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만 공고된다.

2020년 시험부터는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농업연구사 및 수의연구사 공개경쟁채용은 제2차(전공) 시험과목이 일부 변경되어 실시된다.

시험과목 변경이 합격에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 제8회 지방직 시험장소는?

2019년 제8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가 공개됐다.

확정된 필기시험 장소는 목포고등학교이다.

이번 필기시험은 1월18일에 치러지며 시험장소 공고문 확인 후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오전 9시20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장소로 이동시 유의할 점은 해

당 시험장이 주차장이 없거나 매우 협소하다는 점이다. 시험 관계자는 공고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장 진입로에는 교통이 혼잡하므로 가급적 시험장 인근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였다.

전남라도는 2019년 제8회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2월21일 전남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박문각 세무팀이 새롭게 도약합니다!

1년 내 합격은 목표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야 하기에

2개월
종합반

9급
스파르타
회원반

박문각 세무/관세 이론종합반

상담서비스
카톡상담 TALK
※ 박문각을 검색하세요

1월 6일(월) 개강

검증된
박문각 남부
최고 강사진

45년 전통
합격노하우
커리큘럼

수험생
1:1
맞춤관리



종합반 수강료
이벤트 50% 할인!

2개월 종합반 64만원 → 32만원 (50% 할인)

2020 해피 합격 스타트!



박문각공무원 스파르타

1월 정규반개강

혜택은 더 크게! 관리는 더 세게!

공무원 합격을 원하신다면 박문각 스파르타로 시작하세요.

2020년 합격이 시작되는 더 큰 혜택 & 더 센 관리

최대 592만원 할인

테스트 & 피드백 성적관리 시스템



데일리 VOCA테스트

주 5일 하루 10분, 영어 어휘완성!



주간 필수과목 테스트

매주 금요일, 국/영/사 개념 및 점수완성!



월간 합격예측 모의고사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전 과목 실전대비 실력완성!

출결 & 상시 학습관리 시스템

07시 학습시작, 일반 수험생 대비
6개월 360시간 추가 순공 시간 확보!

[일반 공시생 69.9%]



[박문각스파르타 수강생 66.5%]

(고시기획 & 9꿈사 카페 공동기획 설문조사 기준)

『2020년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대비』 ② 일반토목·건축·방재안전·전산개발·전송기술·외무영사 선발인원 증가세 … 올해 출원인원 관심 모아져

2020년 국가직 7·9급 공무원 채용인원이 발표됐다.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7급 755명 ▲9급 4천985명이다. 『고시기획』은 2019-2020년 국가직 7·9급 공무원 기술직군 선발인원, 출원인원, 경쟁률, 응시율 및 합격선 등을 비교해본다.

* 선발인원

【2018-2019년 국가직 7급 일반토목·건축·방재안전·전산개발·전송기술·외무영사 선발인원】		
직렬	2019년	2020년
일반토목	28명	30명
건축	30명	23명
방재안전	2명	5명
전산개발	30명	33명
전송기술	17명	15명
외무영사	30명	37명

2020년 국가직 7급 공무원 기술직 채용인원을 살펴보면 ▲일반토목 30명 ▲건축 23명 ▲방재안전 5명 ▲전산개발 33명 ▲전송기술 15명 ▲외무영사 37명을 각각 선발 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가직 7급 공무원 기술직 선발인원은 ▲일반토목 28명 ▲건축 30명 ▲방재안전 2명 ▲전산개발 30명 ▲전송기술 17명 ▲외무영사 30명을 각각 선발했었다.

각 직렬별 채용인원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토목 28명→30명 ▲건축 30명→23명 ▲방재안전 2명→5명 ▲전산개발 30명→33명 ▲전송기술 17명→15명 ▲외무영사 30명→37명 이다.

전년대비 채용인원이 늘어난 직렬은 일반토목, 방재안전, 전산개발, 외무영사 등이며 건축, 전송기술은 선발인원이 감소했다.

* 출원인원·경쟁률

【2018-2019년 국가직 7급 일반토목·건축·방재안전·전산개발·전송기술·외무영사 출원인원 및 경쟁률】				
직렬	출원인원		경쟁률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일반토목	484명	468명	15.1대 1	16.7대 1
건축	495명	497명	30.9대 1	16.6대 1
방재안전	253명	152명	50.6대 1	76대 1
전산개발	929명	980명	32대 1	32.7대 1
전송기술	232명	226명	29대 1	13.3대 1
외무영사	2천372명	2천415명	64.1대 1	80.5대 1

2018년 국가직 7급 일반토목·건축·방재안전·전산개발·전송기술·외무영사직 출원 인원은 다음과 같다. ▲일반토목 484명 ▲건축 495명 ▲방재안전 253명 ▲전산개발 929명 ▲전송기술 232명 ▲외무영사 2천372명이 각각 접수를 마쳤다.

2019년 국가직 7급 공무원 원서접수 결과 ▲일반토목 468명 ▲건축 497명 ▲방재안전 152명 ▲전산개발 980명 ▲전송기술 226명 ▲외무영사 2천415명이다.

2018년 국가직 7급 일반토목·건축·방재안전·전산개발·전송기술·외무영사직 경쟁률은 ▲일반토목 15.1대 1 ▲건축 30.9대 1 ▲방재안전 50.6대 1 ▲전산개발 32대 1 ▲전송기술 29대 1 ▲외무영사 64.1대 1을 각각 기록했었다.

지난해 국가직 7급 일반토목·건축·방재안전·전산개발·전송기술·외무영사직 경쟁률은 ▲일반토목 16.7대 1 ▲건축 16.6대 1 ▲방재안전 76대 1 ▲전산개발 32.7대 1 ▲전송기술 13.3대 1 ▲외무영사 80.5대 1이었다.

* 응시율

【2018-2019년 국가직 7급 일반토목·건축·방재안전·전산개발·전송기술·외무영사 응시율】		
직렬	응시율	
	2018년	2019년
일반토목	70.2%	68.5%
건축	61.8%	64.1%
방재안전	55.3%	55.2%
전산개발	70.9%	70.5%
전송기술	65.9%	62.3%
외무영사	84.8%	87%

국가직 7급 일반토목·건축·방재안전·전산개발·전송기술·외무영사직 필기시험 응시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 시험에서는 ▲일반토목 70.2% ▲건축 61.8% ▲방재안전 55.3% ▲전산개발 70.9% ▲전송기술 65.9% ▲외무영사 84.8%를 기록했었다.

2019년 국가직 7급 필기시험 실시 결과 ▲일반토목 68.5% ▲건축 64.1% ▲방재안전 55.2% ▲전산개발 70.5% ▲전송기술 62.3% ▲외무영사 87%로 나타났다.

필기시험 응시율이 상승세를 기록한 직렬은 ▲건축 61.8%→64.1% ▲외무영사 84.8%→87% 였으며 일반토목, 방재안전, 전산개발, 전송기술은 응시율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 합격선

【2018-2019년 국가직 7급 일반토목·건축·방재안전·전산개발·전송기술·외무영사 합격선】		
직렬	합격선	
	2018년	2019년
일반토목	70.83점 (양성 68.33점)	73.33점 (양성 71.66점)
건축	76.66점 (지방 75.83점)	66.66점
방재안전	75.83점	77.5점
전산개발	74.16점 (지방 73.33점)	74.16점 (양성 72.5점)
전송기술	75점	65.83점 (양성 64.16점)
외무영사	85.83점 (양성 85점)	87.5점

2018년 국가직 7급 일반토목·건축·방재안전·전산개발·전송기술·외무영사직 필기 시험 합격선은 ▲일반토목 70.83점(양성 68.33점) ▲건축 76.66점(지방 75.83점) ▲방재안전 75.83점 ▲전산개발 74.16점(지방 73.33점) ▲전송기술 75점 ▲외무영사 85.83점(양성 85점)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19년 필기시험 실시 결과 합격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토목 73.33점(양성 71.66점) ▲건축 66.66점 ▲방재안전 77.5점 ▲전산개발 74.16점(양성 72.5점) ▲전송기술 65.83점(양성 64.16점) ▲외무영사 87.5점을 기록 했었다.

박문각 공무원

스파르타

프라임패스

노랑진 / 종로 / 강남 / 부산 / 평택 / 양산 / 순천

47년 노하우로 설계된 최상의 합격 시스템

박문각 올패스
무제한 동영상강의

+

최신 시설의
지정좌석 전용학습관

+

철저한 관리/감독
스파르타 관리시스템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최적의 학습 환경 제공

노랑진 학습관
02-812-6618

종로 학습관
02-6182-9620

강남 학습관
02-3476-6030

부산 학습관
051-807-1972

평택 학습관
031-691-1972

양산 학습관
055-388-1972

순천 학습관
061-726-1113

이런 수험생에게 스파르타 프라임패스를 추천합니다

동영상 강사가 좋지만
학습 능률이 떨어졌던 수험생

취약부분의 반복학습과
철저한 생활관리를 원하는 수험생

정확한 수험정보와
맞춤형 수험전략이 필요한 수험생

자유로운 강사선택과
학습비용 절감을 원하는 수험생

선택 공무원 동영상 강의의 무제한 수강과
따라올 수 없는 관리 시스템의 합격 시너지 효과를 경험해보세요.

PMG 박문각공무원

합격을 위한 선택 박문각!

박문각
스파르타
설명회

2020 대비 박문각 공무원



제도를 알면 합격이 보인다

합격전략 설명회

공무원을 시작하는 첫 단계!

9/7급 기본이론종합반 & 학습커리큘럼!

20년도 7/9급 국가직,지방직,서울시
공무원 시험 합격 전략적으로 준비하자!

상담서비스

※ 박문각을 검색하세요.

카톡상담

2020.1.18(Sat). 2:00 P.M. 남부 본원 301호

“푸!짐!한! 선물과 함께 박문각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예약자 증정 주간 학습 플래너, 순공플래너 증정
추첨을 통해 7/9급 종합반 실강 수강권 증정

※ 사은품 이미지는 실제 사은품과 달라질 수 있으며 50,000원 이상 증정품은 제세공과금이 부과됩니다.



PMG 박문각공무원 www.pmg.co.kr

노량진(남부고시)학원 02)815-7819, 3280-9990 온라인 02)3489-9500



| 이유진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2019년 국어 영역별 기출분석(3)

이유진 국어

- ▶ 우월한 예상코드(단원별 문풀) (1월3일 개강)
[금] 09:00~13:00 (8주 완성)
- ▶ 국어 축지법(핵심이론+핵심기출) (1월8일 개강)
[수] 14:00~18:00 (8주 완성)
[목] 14:00~21:10 (8주 완성)
- ▶ [패키지] (1~3월) 우월한 예상코드+화제의 모의고사 (1월3일 개강)
[금] 09:00~13:00 (12주 완성)
- ▶ (다음 나라 카페: <http://cafe.daum.net/naraeyoujin>)

5. 의미론(2/11)

19.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년 국가직 9급>

하나의 개념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의어는 서로 경쟁을 통해 하나가 없어지거나 각기 다른 의미 영역을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현실 언어에서 동의어로 공존하면서 경쟁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쪽은 살아남고 다른 쪽은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동의 충돌의 결과 의미 영역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의미 교체 등으로 구분된다

- ① '겨레'는 '친척'의 뜻에서 '민족'의 뜻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 ② '얼굴'은 '형체'의 뜻에서 '안면'의 뜻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 ③ '말미'는 쓰지 않고 '휴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 ④ '가을걷이'와 '추수'는 공존하며 경쟁하고 있다.

[정답] ③

[해설]

'말미'는 일정한 직업이나 일 따위에 매인 사람이 다른 일로 말미암아 얻는 겨를을 뜻하는 말이다. 비슷한 말로 '직장·학교·군대 따위의 단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일. 또는 그런 겨를'을 뜻하는 '휴가(休暇)'가 있다. '말미'와 '휴가' 모두 유의어로 공존하며 쓰이는 말이다.

☆ [오답 해설]

- ① '겨레'는 본래 '종친(宗親)'의 뜻에서 '동포(同胞), 민족(民族)'의 뜻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② '얼굴'은 몸 전체 혹은 형상을 뜻하다가 '안면'의 뜻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 ④ '가을걷이'와 '추수(秋收)'는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임'을 뜻하는 동의어로, 어느 한쪽이 소멸되지 않고 둘 다 공존하며 쓰이는 말이다.

06. 높임법과 언어 예절(1/1)

11.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2019년 국가직 9급>

국어의 높임법에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상대 높임법,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 등이 있다.

이러한 높임 표현은 한 문장에서 복합적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의 경우 대화의 상대, 서술어의 주체, 서술어의 객체를 모두 높임 표현이다.

- ①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댁에 들어가셨다.
- ②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 ③ 어머니께서 아주머니께 이 김치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 ④ 주민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③

[출제영역] 이론 문법 - 높임법과 언어 예절

[해설]

상대 높임법은 문장의 종결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③에서는 듣는 이(상대)를 높이기 위해 격식체의 하십시오체를 활용하여 '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격식체의 하십시오체는 아주 높임 표현으로, 높임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로 '가' 대신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를 활용하였고, 서술어 '하셨습니다'에서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활용하였다. 객체인 '아주머니'를 높이기 위해 부사격 조사로 '에게' 대신 '께'를, '주다' 대신 '주다'의 높임말인 '드리다'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아주머니께 이 김치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는 상대, 주체, 객체를 모두 높임 문장이다.

참고) 높임법의 분류

높임법					
주체	객체	상대			
직접	간접	목적어	부사어	격식	비격식

참고) 상대 높임법의 종류

구분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하십시오체	합니다	합니까?	하십시오	하십시오	-
하오체	하오	하오?	하(시)오, 하구려	합시다	하는구려
하계체	하네, 함세	하는가?, 하나?	하계	하세	하는구먼
해라체	한다	하나?, 하니?	해라, 하거라	하자	하는구나

	해요체	해요, 하지요	해요?, 하지요?	해요, 하지요	해요, 하지요	하는군요
비격식체	해체 (반말)	해, 하지	해?, 하지?	해, 하지	해, 하지	해, 하지, 하는군, 하는구먼, 하네

[오답 해설]

- ①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들어가셨다')를 활용하였으며,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데리다'의 높임말인 '모시다'를 활용하였다. '집'을 높임 말인 '댁'도 활용되었으며 이는 맥락에 따라 주체를 높이기 위한 것일 수도 객체를 높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서술어 '들어가셨다'는 격식체의 해라체를 활용한 표현이다. 격식체의 해라체는 높임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댁에 들어가셨다.'는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은 있으나 상대 높임이 없는 문장이다.
- ②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부사격 조사로 '께'와 서술어로 '드리다'를 활용하였다. 또한 화자를 낮춘 겸양의 표현인 '제가'와 '말씀'은 상대를 높인 표현이다. 서술어의 종결을 '될까요'라 하였는데 이는 비격식체의 해요체를 활용하여 상대를 높인 표현이다. 따라서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는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은 있으나 주체 높임이 없는 문장이다.
- ④ 주체인 '주민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기울여 주시기'), 듣는 이가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여러분'을 활용하였다. 서술어의 종결을 '바랍니다'라 하였는데 이는 격식체의 하십시오체를 활용한 것이다. 격식체의 하십시오체는 아주 높임 표현으로, 상대 높임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내 이야기'가 아닌 '제 이야기'라고 겸양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 높임 의도를 표현하였다. 따라서 '주민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은 있으나 객체 높임이 없는 문장이다.

해당 강의는 남부고시온라인(www.nambuonline.com)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다음호에 계속 ... >

2020년도 9급공무원 시험대비

박문각 합격예측 전국 모의고사

온라인 / 오프라인 동시시험

2020.1.19.(일) 10:00

응시직렬

일반행정 / 교육행정 / 세무 / 관세 / 교정 / 보호 / 검찰사무
마약수사 / 출입국관리 / 사회복지 / 기술직 / 소방직(공채)

합격을 만드는 박문각 모의고사

- 실제 시험과 동일한 유형 & 문항구성
- 6회 이상 검수로 엄선된 문제
- 전국 응시생대비 합격가능성 예측
- 오답노트로 관리하는 과목별 약점 영역

압도적인 규모와 최고의 교수진이 출제하는 박문각 모의고사

- 합격예측 서비스 이용 고시생
-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여 빠른 합격 가능
- 개인위치 분석과 학습방향 제시로 학습효율 상승
- 합격

박문각 전국 모의고사의 합격 전략 제안

- 다양한 성적통계로 본인의 정확한 위치 파악
- 과목별 성적비교로 나의 위치 및 강·약점 분석
- 직렬별 성적비교를 통해 직렬선택 유·불리 예측
- 영역별 취약점 분석하여 합격 전략 수립
- 매 월 응시한 모의고사 성적변화 추이 분석
- 시간인배 및 실전감각 훈련으로 실수 최소화

합격기준! 박문각 공무원!

초시생을 위한 공부습관 잡아주기!

1월 6일 (월)개강

박문각 9급

이론종합반

시 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8:00 ~ 09:00	환급반 아침 자습						
09:00~13:00	영 어	영 어 국 어	국 어	한국사	한국사		
14:00~18:00	행정학 (이명훈) 국제법 (이만복)	국제법 (이만복)	행정법 (변원갑, 박두희) 세 법	행정학(조은종) 행정법(변원갑) 행정법(박두희) (14:00~16:00) 행정학(이명훈-격주) (16:00~18:00)	사회 행정법 (김진영)	사 회	국제법 (윤경철) (09:30~)
18:40~22:10			행정법 (박제민)	행정법 (박제민-격주)			

※ 시간표는 학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영상 제공: 행정학(신용한), 수학, 회계학(오준석, 신은미), 노동법, 교육학, 사회복지학, 정보보호, 컴퓨터일반, 형법, 형소법

※ 환급반은 오전8시부터 아침 자습시간입니다

종합반 수강료 이벤트

2개월 환급반	— 68만원 →	54만원	
2개월 종합반	— 64만원 →	32만원	[50% 할인]
2개월 기술직	— 49만원 →	24만 5천원	[50% 할인]



「2020년 공무원 영어 출제예감 어휘」 Voca Test(4)

| 정일현 교수 | 박문각강남고시학원

정일현 영어

- ▶ PA(01-02월) 7급&9급 영어 기본이론 단과
개강일 : 2020/01/06
시간 : [월] 09:00-13:00 [수] 14:00-18:00
- ▶ PA(01-02월) 7급&9급 영어 문제풀이 단과
개강일 : 2020/01/06
시간 : [수] 09:00-13:00
- ▶ 빠른 합격을 위한 공사생 스토리
'공사gogo' (<https://cafe.naver.com/gongsigogo>)

※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01.

In his answers from the journalist's questions, the Secretary **circumvented** direct mention of the negotiation results.

- ① reckoned
- ② averted
- ③ enervated
- ④ cogitated

02.

His youth does not **extenuate** his disgraceful behavior.

- ① camouflage
- ② incriminate
- ③ palliate
- ④ amplify

03.

The prosecution dealing with this incident has been focused on investigating especially those who **conspired** with drug dealers.

- ① objurgated
- ② colluded
- ③ disparaged
- ④ placated

04.

The monotonous routine of hospitable life induced a feeling of ennui which made him moody and **irascible**.

- ① erudite
- ② grouchy
- ③ incredulous
- ④ serene

05.

David is a very persuasive speaker, but when you examine his arguments, most of them are illogical. They simply don't **hold water**.

- ① take sides
- ② make sense
- ③ clear the air
- ④ pick a quarrel

06.

He made many mistakes that **debased** the value of the member.

- ① impinged
- ② fabricated

- ③ exalted
- ④ degraded

07.

The frozen real estate market, which had been regarded as the most **lucrative** income source, has driven investors to buy shares.

- ① perspicuous
- ② consistent
- ③ disparate
- ④ profitable

08.

There were strong feelings from both parties, but both of them were pleased because they thought a way out of the **impasse** has been found.

- ① deadlock
- ② dearth
- ③ hamlet
- ④ breakthrough

※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09.

_____ usually suggests individual behavior and implies that a repeated action has become almost automatic.

- ① Inclination
- ② Occurrence
- ③ Custom
- ④ Habit

[정답 및 해설]

01. [정답] ②

[해석]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 장관은 협상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어휘]

circumvent 피하다 (=avert, eschew, shun)

reckon 계산하다, 판단하다

enervate 약화시키다

cogitate 생각하다, 숙고하다

02. [정답] ③

[해석]

그는 비록 젊으나 그러한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한 정상 참작의 이유는 되지 못한다.

[어휘]

extenuate 줄여주다, 경감하다, 정상을 참작하다 (=palliate)

camouflage 위장하다, 감추다

incriminate 비난하다

amplify 증대시키다

03. [정답] ②

[해석]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검찰은 특히 마약 밀매업자들과 공모한 사람들에게 대한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휘]

conspire 공모하다, 음모를 꾸미다 (= collude, intrigue)

objurgate 꾸짖다, 비난하다

disparage 알보다, 깔보다

placate 달래다, 진정시키다

04. [정답] ②

[해석]

쾌적한 생활의 단조로운 일상만은 권태감을 유발해 그를 우울하고 신경질적으로 만들었다.

[어휘]

irascible 성미가 급한, 신경질적인(= grouchy)

erudite 학식 있는,

incredulous 의심 많은

serene 고요한, 조용한; 침착한

05. [정답] ②

[해석]

David는 매우 설득적인 연설자이다. 그러나 내가 그의 주장을 조사해보면 그 주장들 대부분이 비논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들은 단순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어휘]

hold water 이치에 맞다(=make sense)

take sides 편을 들다

clear the air 상황을 개선하다

pick a quarrel 싸움을 걸다

06. [정답] ④

[해석]

그는 그 멤버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많은 실수를 했다.

[어휘]

debase (품성, 인격 등을)떨어뜨리다(= degrade, lower)

impinge 침범, 침해하다

fabricate 꾸며내다, 위조하다

exalt 높이다, 고상하게 하다

07. [정답] ④

[해석]

가장 돈 벌이가 되는 수입원으로 여겨졌던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들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을 사게 만들었다.

[어휘]

lucrative 유리한, 돈이 벌리는(=profitable)

perspicuous 명료한, 명쾌한

consistent 일관된; 일치하는

disparate 다른, 갈지 않은

08. [정답] ①

[해석]

양당은 서로 강한 대립이 있었으나, 난국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측 모두 마음이 편했다.

[어휘]

impasse 막다른 골목, 난국(=deadlock, standoff)

dearth 부족, 결핍

surfeit 지나침, 과도

breakthrough 돌파, 약진, 큰 발전

09. [정답] ④

[해석]

습관은 보통 개인적 행동을 암시하고 반복된 행동이 거의 자동적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어휘]

habit 습관

inclination 성향, 기호, 체질, 기울기

occurrence 발생, 사건, 생긴 일

imply 암시하다(=hint)

automatic 자동적인



Since 1972, 48년 합격노하우

2020 국가직 대비

Final Grammar Solution

- 실전 영어 문법 최종 정리 -

20. 1. 27. (월)

10:00~17:00

수강료: 3만원 (교재 포함)



영어 정일현 교수

PMG 박문각강남고시학원
강남역 10번출구 100m 대우벨라체 2층

02) 3476-6030
www.gangnamgosi.com



한국사 지역사 완전정리 특강(6)

| 남택범 교수 | 박문각남부 · 강남고시학원

II. 경기·강원

[1] 경기도

〈1〉지명

1. 어원

경기(京畿)란 고려·조선 시대 왕도와 왕실을 보위하기 위해 설치된 왕도의 외곽지역을 말한다. 경기의 ‘경’은 ‘천자(天子)가 도읍한 경사(京師)’를 뜻하고, ‘기’는 ‘천자의 거주지인 왕성(王城)을 중심으로 사방 500리 이내의 땅’을 의미했으나 점차 ‘왕도의 외곽지역’이라는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2. 시대별 명칭

명칭	시기	특징
신주(新州)	진흥왕	초대 군수 김무력
한주(漢州)	757년	9주제 실시에 따라 한주에 편입
양주(楊州)	고려 초기	견훤에게 식읍으로 지급
양광도(楊廣道)	1018년	현종 때 5도 체제로 정비과정에서 양광도에 편입, 이후 개성과 부근 13개현을 묶어 경기라 칭함
경기좌도 · 경기우도	1390년	44개현을 통치 하면서 좌우로 분할 통치
경기도(京畿道)	조선 태종	8도제 실시에 따라 경기도로 편제, 세종 때 현재의 영역과 일치
한성부 · 인천부 · 개성부	1895년	8도에서 23부로 개편되며 분할(2차 갑오개혁)
경기도	1896년	23부제가 13도로 개편되면서 경기도로 편제

〈2〉구역

1. 행정구역

경기도는 현재 28개시 3개군으로 되어있다.

경기도 (남부)	시	수원시(장안구 · 권선구 · 팔달구 · 영통구) 성남시(수정구 · 중원구 · 분당구) 안양시(만안구 · 동안구) 안산시(상록구 · 단원구) 용인시(처인구 · 기흥구 · 수지구)
	군	광명시 · 평택시 · 과천시 · 오산시 · 시흥시 · 군포시 · 의왕시 · 하남시 · 이천시 안성시 · 김포시 · 화성시 · 광주시 · 여주시 · 부천시
경기도 (북부)	시	고양시(덕양구 · 일산동구 · 일산서구) 의정부시 · 동두천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파주시 · 양주시 · 포천시
	군	연천군 · 가평군

〈3〉선사 시대

1. 연천 전곡리 구석기 유적

1978년 발굴된 구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7차례에 걸쳐 발굴로 약 4,000여점의 석기가 발견되었다. 시기는 전기~후기 구석기 모든 시기에 걸쳐 출토되었다. 연천 전곡리 유적은 동아시아 최초로 아슐리안형 석기(양날형석기)가 등장하여 기존의 모비우스 학설을 부정하게 되었다.

* 르발루아 기법(19년 경찰직 1차)

르발루아 기법은 19세기의 파리 교외의 르발루아 페레 유적에서 발견된 몸돌 · 격지 등의 제작기법을 말한다. 전기 구석기시대의 몸돌과는 달리, 여러 제작과정을 거치면서 그 두께와 길이를 조절하며 만든다는 점에서 석기제작기술의 발전양상을 볼 수 있다. 또한 르발루아 기술을 활용하는 가운데 많은 격지들이 만들어지며 그 중 소수의 격지만 잔손질을 통해 석기로 만들어진다.

2. 시흥 오이도 유적

1960년 안말(배다리)조개더미가 발견된 이래 6개 지역 12지점에서 조개더미유적이 확인되었다. 신석기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시대까지 이용된 유적으로서 서해안 지역 주민의 생업경제와 구덩주거지 · 온돌시설 등 주거양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유적이다.

3. 여주 흔암리 유적

1962년에 이 곳 구릉에 토기와 석기들이 산포되어 있음이 알려져 1972~1977년까지 발굴 조사되었다. 모두 14기의 집터가 확인되었다. 흔암리 유적은 전후 수백 년간 존속한 청동기시대 전기의 한강변의 농경민 취락지로서 쌀 · 보리 · 수수 · 조 등 여러 가지 곡식이 발견되어 청동기시대 전기에 한강유역에서 쌀이 재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4〉삼국 시대

1. 당항성(黨項城)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삼국시대의 석축 산성으로 당성(黨城)이라고도 한다. 이곳은 신라가 황해를 통해 중국과 교통했던 중요한 출입구 구실을 하였다. 신라 말기에는 이곳에 당성진을 설치하여 강화의 혈구진, 완도의 청해진과 더불어 신라 해군의 근거지로 중요시되었던 곳이다. 석축 산성의 형태는 테뫼형(山頂式)과 포곡형(包谷形)을 결합한 복합식이다.

2. 안성 석남사

신라 문무왕 20년(680)에 당대의 고승 석선(奭善)이 개산하면서 창건했다. 그 후 문성왕 18년(856) 가지산문의 2조인 염거국사(廉居國師)가 주석하면서 중수했고, 고려 광종의 아들 혜거국사(慧炬國師)가 크게 중건하는 등 이름 높은 스님들이 석남사를 거쳐갔다. 임진왜란 중 전화를 입었고, 이후 ‘웅정 3년기사3월일조성’(癸正 三年己巳三月日造成)이라는 명문기와가 발견되어 영조 1년(1725)에 법당이 중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보물 제823호로 지정되어 있는 영산전은 공포의 짜임새가 조선 초기와 중기 사이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건축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건물이다.

3. 경순왕릉

이름은 김부(金傅). 927년 포석정에서 후백제 견훤의 습격을 받은 경애왕이 시해되고,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935년 국서(國書)를 시랑 김봉휴(金封休)편에 보내 왕건에게 항복, ‘평화적’으로 나라를 넘겨주고 재위 9년만에 왕위에서 물러났다. 왕건의 휘하에 들어간 경순왕은 태자의 지위인 정승공(正承公)에 봉해지고 유희궁(柳花宮)을 하사받았으며, 왕건의 딸 낙랑공주와 다시 혼인하는 등 귀화인의 예우를 받으면서 여생을 보낸다. 경순왕은 항복한 지 43년 만인 고려 경종 3년(978) 세상을 떠나 경순(敬順)이란 시호를 받고 이곳에 묻혔다. 신라의 왕릉이 경주를 벗어나 다른 곳에 안치된 경우는 경순왕릉이 처음이다. 현재 1747년(영조 23) 신라 경순왕의 능(新羅敬順王之陵)이라 새긴 비가 세워져있다.

(5) 고려 시대

1. 개성

919년(태조 2) 고려태조가 송악 남방지역에 도읍을 정한 다음 개성군(현재 개풍군)을 합병해 개주(開州)라고 했으며, 935년 신라를 복속한 후 국도(國都)가 되었다. 960년(광종 11)에 개경(開京)으로 개칭되었으며, 995년(성종 14) 개성부(開城府)로 되었다.

1) 만월대(滿月臺)

919년(태조 2) 정월에 태조가 송악산 남쪽 기슭에 도읍을 정하고 궁궐을 창건한 이래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의 침입으로 소실될 때까지 고려왕의 주된 거처였다.

2) 개성역사유적지구

고려왕조(918~1392)의 수도였던 개성 일대에 남아 있는 유적지구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의 개성 시내와 서쪽산자락을 포함한 지역에 걸쳐 있다. 유적군은 개성 성곽, 개성 남문, 만월대, 첨성대, 성균관, 숭양서원, 선죽교, 표충비, 왕건왕릉, 7왕릉, 명릉, 공민왕릉의 12개 개별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개성 흥왕사(興王寺)

고려시대의 대표적 사찰이며, 고려문종의 원찰(願刹)로 창건되었다. 사치스럽고 장엄하다 하여 신하들의 반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역사(役事)를 진행시켜 1067년(문종 21) 정월에 낙성하였다. 문종의 아들이었던 의천(義天)이 초대 주지직을 맡았고, 이 절에서 교장(敎藏)을 간행하였다. 그 뒤 이 절에는 무신정권의 실력자인 최충헌(崔忠獻)의 아들 최이(崔怡)가 황금 200근으로 13층 탑과 화병(花瓶)을 조성하여 헌납하였다. 그러나 충렬왕 때에 왕비가 왕과 함께 이 절에 와서 황금탑을 보고는 욕심을 내어 금탑을 빼앗아 대궐로 가져왔는데, 장식품들은 제국공주(齊國公主)의 노비들이 훔치고 탑은 공주가 차지하였다. 흥왕사 승려들은 간절히 되돌려 주기를 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는데, 별안간 왕이 괴질에 걸려 백약이 효험이 없게 되자 공주는 금탑을 흥왕사로 돌려주었고, 왕의 병도 완쾌되었다고 한다. 공민왕 때 홍건적이 대거 침입하자 공민왕은 잠시 복주(福州)와 청주(淸州)로 피신하였다. 그 뒤 난이 진압되자 환도하여 잠시 흥왕사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때 왕의 신임이 두터웠던 김용(金鑄)이 역심을 품고 무리들과 함께 이 절에 침범하여 시위를 죽이고 왕까지 시해하려 하였다.(김용의 난, 1362)

4) 나성(羅城)

11세기 초 거란의 침입이 있은 뒤 강감찬의 건의에 따라 축성하였다. 1009년(고려 현종 즉위년) 공사가 시작되어 착공 21년 만인 1029년(현종 20)에 완공하였다.

5) 수창궁(壽昌宮)

고려시대의 궁궐로 1011년(현종 2) 2월에 거란의 침입으로 피난 갔던 청주에서 개성으로 돌아와 기거했었다. 강화 천도 시기 강화도에도 같은 이름의 궁궐을 두었다.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의 침입으로 연경궁이 소실되자, 1370년 8월 다시 수창궁 옛 터를 보고 궁궐 짓기를 명하였다. 1384년 우왕 때 낙성되어 그 뒤 공양왕과 조선왕조를 개창한 태조이성제가 이곳에서 즉위했으며 정종 · 태종도 이곳에서 임어(臨御)하였다.

6) 탑

① 개성 불일사 5층 석탑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으며,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

② 개성 현화사 7층 석탑

신라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의 직선미가 가미되어 각 부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탑이다.

③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

1348년(충목왕 4) 제작된 탑으로 당시 새롭게 등장한 다각(多角) 석탑의 유형을 따르지 않고 신라의 형식을 이은 평면직사각형의 형태와 원의 영향으로 다층(多層)으로 제작된 탑이다.

박문각스파르타

ALL-CARE
기숙
연계반

1월 이론반
&
문제풀이반 개강

2020년 공무원 합격,
아직 늦지 않았다

학습 및 자습 분위기 **최상** / 집중도 **최상** / 만족도 **최상**



수강생 특별 혜택

- 수강 할인** 수강료 25%할인
- 전원 증정** 순공 합격플래너 증정
LED 스탠드 증정
- 전원 제공** 갤럭시 TAB 제공 (등록기간 내 제공)





술술술 한자 & 속담(6)

| 전선혜 교수 - 선혜국어 네이버 카페
| 박문각남부·강남고시학원 <http://cafe.naver.com/jshgotgan>

한자성어 편 - 겉초보은

[훈과 음]

結 맺을(결) 草 풀(초) 報 갚을(보)
恩 은혜(은)

[성어의 의미]

- ①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 ②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함.

[고사]

진(晉)나라의 대부 위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에게는 첩이 한 명 있었다.

어느 날 위무자가 병으로 몹시 늙게 되었다. 아직 제정신일 때 그는 아들 위과에게 일러 말했다.

“내가 죽으면 이 첩을 다른 사람에게 개가를 시켜라.”

하더니, 그 뒤 병이 심하여 죽게 되거늘 또 말하되

“내가 죽으면 저 여인은 순장을 시켜라.”라고 유언했다. 위과는

“차라리 정신이 있을 때의 명령을 좇아 이를 개가를 시키리라.”

하고 서모(庶母)를 개가시켜 순장으로 인한 죽음을 면하게 하였다.

후에 진(晉)나라와 진(秦)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위과가 전쟁에 나갔다. 진(秦)나라의 두회라는 자가 싸우다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두회가 풀에 걸려 넘어져 위과가 두회를 사로잡아 뜻밖에도 큰 전공을 세울 수 있었다.

그날 밤, 위과의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그는 서모의 아버지의 망혼이었다.

“나는 그대가 출가시켜 준 여인의 아비오. 그대는 아버님이 옳은 정신일 때의 유언에 따라 내 딸을 출가시켜 주었소. 그 때 이후로 나는 그대에게 보답할 길을 찾았는데 이제야 그 은혜를 갚은 것이오.”

라고 했다.

- 출전 『춘추좌씨전』

[동의어]

刻骨難忘 새길(각) 뼈(골) 어려울(난) 잊을(망)
-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함.

[확인 학습]

1. 다음 중 그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白骨難忘¹⁾
- ② 背恩忘德
- ③ 結草報恩
- ④ 刻骨難忘

정답은 ②번이다. ‘背恩忘德(배은망덕)’은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가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므로,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의미의 다른 성어들과는 차이가 있다.

1) 白骨難忘(백골난망):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남에게 큰 은덕을 입었을 때 고마움의 뜻으로 이르는 말.

‘SPEED’ 영단어 암기(37)

193. overall

: 전체의, 전반적인

- ▷ The overall situation is good, despite a few minor problems.
(사소한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괜찮다.)

194. pattern

① 무늬, 문양

- ▷ This carpet has a pretty pattern.
(이 카펫은 무늬가 곱다.)

② 본보기(excellent example)

- ▷ He's a pattern of all virtues.
(그는 모든 미덕의 귀감이다.)

③ 방식 경향,

- ▷ The illness is not following its usual pattern.
(병이 보편적인 방식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④ 본받다

- ▷ He patterned himself after a man he admired.
(그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본받았다.)

195. polish

: 닦다, 광을 내다; (문장을) 연마하다

- ▷ The violinists are polishing their violins.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바이올린을 닦고 있다.)

196. prestige

: 명성, 신망; 위신, 위세

- ▷ The mayor's prestige is known throughout the country.
(그 시장의 명성은 전국에 걸쳐 알려져 있다.)

197. presumption

: 추정, 가정; 무례, 뻔뻔스러움

(동) presume : ...을 추정하다

- ▷ He had the presumption to criticize my work.
(그는 무례하게도 내 작품을 비판했다.)

198. reform

: 개혁하다, 개정하다; 개혁, 개정

(명) reformation : 개혁

- ▷ We need to reform this government now before more politicians get rich from our tax money.
(우리는 더 많은 정치인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부자가 되기 전에 당장이 정부를 개혁해야 한다.)

202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합격하는 박문각 공무원 기출문제 시리즈

2020 박문각 기출문제 정채영 국어 기출종결자 김세현 영어 단원별 기출문제 노병석 한국사 기출문제 1894제
김진영 멘토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조은종 포스행정학 단원별 기출문제 정정사회 기출문제 400 오현준 정통교육학 단원별 기출문제



한 번의 등록으로 합격까지!! 박문각 최초, 종로에서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선보입니다.

9급 공무원 [박문각종로학원] 스파르타 평생회원반

합격할 때 까지 합격에 필요한 모든 것을 무한 책임지는 박문각의 새로운 관리시스템

학원 강의



필수과목
강사선택제

+

온라인 강의



전과목·전강사
무제한 수강

+

영어 집중반



기초반·고급반
수준별 강의

VER 3.0

스파르타 관리

스파르타
평생회원반

X2배 강력해진
수강생 관리

이 모든 것이 합격할 때 까지!



2020년대비
기본서5권



학원강의
정규과정



온라인강의
9급 올패스



전용학습관
1인 독서실



VOCA
교재



2019년
기술문제집



전국모의고사
응시권



고급독서대
텀블러

※ 유의사항

1. 학원강의 정규과정에서 평생회원반 · 스파르타반은 기본이론반 · 테마이론반 · 기술문제반 · 영어집중관리반을 무료로 수강가능 합니다. 그 이외 수업은 등록해야 합니다.
2. 박문각 9급 올패스 동영상은 평생회원반은 1년 제공(1년 이후는 종로학원 강의 동영상 제공), 스파르타반은 해당기간 동안 제공됩니다.
3. 전용학습관 1인 독서실은 평생회원반은 1년 제공, 스파르타반은 해당기간 동안 제공됩니다.
4. 2021년 국가직 · 지방직 대비 평생회원반은 ~2021년 6월까지 / 2021년 국가직 대비 평생회원반은 ~2021년 4월까지 전용학습관 1인 독서실 · 박문각 9급 올패스 동영상이 제공됩니다.

평생회원 · 스파르타 수강료

합격 할 때까지 평생회원반	279만원	2021년 국가직 · 지방직 대비 평생회원반 (기간 : 2021년 6월까지)	460만원
2021년 국가직 대비 평생회원반 (기간 : 2021년 4월까지)	400만원	2020년 국가직 · 지방직 대비 스파르타반 (기간 : 2020년 6월까지)	180만원
2020년 국가직 대비 스파르타반 (기간 : 2020년 3월까지)	90만원	2개월 스파르타반	60만원



「2019년 서울시 7급」 행정학개론(B책형) 기출문제 해설(6)

| 이명훈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8. 인사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탄력적 인사관리가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 ② 업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임용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
- ③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여 인사행정을 소극화, 형식화시켰다.
- ④ 직업공무원제는 원칙적으로 개방형 충원 및 전문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정답] ③

[해설]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여 인사행정을 소극화, 형식화시켰다.(하이패스 행정학 p550)

[오답정리]

- ①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탄력적 인사관리가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 ② 업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임용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당과 관료제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공직의 민주화를 추구하였다.
- ④ 직업공무원제는 원칙적으로 폐쇄형 충원 및 일반행정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핵심체크] 실적주의

개념	공직임용의 기준을 개인의 실적(개인의 능력, 자격, 지식, 성적 등)에 두는 제도
발전요인	① 정당정치 및 업관주의의 폐해(가필드 대통령의 암살사건) ② 행정국가화 현상 ③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참패 등
성립배경	• 영국:노스코트-트레빌리언 보고서에 근거한 제1, 2차 추밀원령(1870)에 의해 확립 • 미국:영국의 공무원제도를 연구한 이스턴 보고서의 영향을 받아 펜들튼법(1883)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해치법(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에 의해 강화됨
펜들튼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제도 ② 독립적 · 초당적 연방중앙인사위원회 설치 ③ 시보임용 기간제 ④ 공무원의 정치 헌금 및 정치활동의 금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⑤ 전문과목 위주의 시험과목 편성 ⑥ 정부와 민간부문 간 폭넓은 인사교류 ⑦ 제대군인에 대한 특혜 등
주요내용	① 공직취임의 기회균등, ② 능력 · 자격 · 실적 중심의 공직임용 ③ 정치적 중립 ④ 공무원의 신분보장 ⑤ 인사권의 집권화 ⑥ 인사행정의 합리화 · 과학화 · 객관화 ⑦ 상대적 평등주의(능력에 따른 차별)
장점	① 공직임용에의 기회균등(민주적 평등이념 실현) ② 행정의 전문성 · 능력성 확보 ③ 행정의 공정성 확보(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④ 행정의 안정성 · 계속성 확보 ⑤ 인사행정의 객관성 확보 등
단점	① 인사행정의 경직화 · 형식화 ② 인사행정의 소극화(부적격자의 제거에 관심) ③ 인사행정의 집권화 ④ 형식적 기회균등(형평성 · 대표성 저하) ⑤ 행정의 대응성 · 책임성 저해(신분보장으로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등 야기) ⑥ 정치적 변동 대응 곤란 ⑦ 직무수행 능력 측정 곤란 ⑧ 기술성 · 수단성 위주의 행정 야기 등

19. 지방재정의 사전관리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기지방재정계획	ㄴ. 지방재정투자심사	ㄷ. 행정사무감사
ㄹ. 성인지예산제도	ㅁ. 재정공시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ㄷ, ㄹ, ㅁ

[정답] ③

[해설]

지방재정의 사전관리제도는 예산결정 이전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ㄱ), 지방재정투자심사(ㄴ), 재정공시제도(ㅁ)는 예산결정 이전에 지방재정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한편 성인지 예산제도(ㄹ)는 지방재정에 대한 사전관리제도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사전관리제도이다. (하이패스 행정학 p844)

[핵심체크] 지방재정관리제도

주 체		사전예산관리	사후재정관리
중앙정부	재정·예산관리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참고자료)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위기 사전 경보 시스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
		국고보조사업 운영지침(개별 부처)	지방교부세 감액제
		지방채 총액한도액 초과 발행 통제	국고보조사업 정산 보고
	정책관리		발생주의 · 복식부기 정부회계
			감사원 감사와 국회의 국정감사
		성인지 예산제도(여성가족부)	국고보조사업 이력관리(행정안전부)
		성별영향평가제도(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합동평가(국고보조사업)
		참여예산제(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평가(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 예산제도	행정사무 감사(지방의회)
		지방채 발행(총액한도액 이내 발행)	재정사업 평가(자체평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지역주민		중기지방재정계획	
		주민참여 및 감시(주민참여예산)	• 재정 운영 상황 공개(재정공시) • 주민소송제도

20. 리더십 상황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블레이크(Blake)와 머튼(Mouton)의 관리그리드 이론
- ②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응 모형
- ③ 허쉬(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의 삼차원적 모형
- ④ 하우스(House)와 에반스(Evans)의 경로-목표이론

[정답] ①

[해설]

블레이크(Blake)와 머튼(Mouton)의 관리그리드 이론은 상황론적 리더십이론이 아니라 행태론적 리더십이론이다. 반면,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응 모형(②), 허쉬(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의 삼차원적 모형(③), 하우스(House)와 에반스(Evans)의 경로-목표이론(④)은 상황론적 리더십이론이다. (하이패스 행정학 p516~520)

[핵심체크] 리더십이론의 전개

자질론	의의	리더 개인의 타고난 자질에 초점을 둔 고전적 연구(속성론, 특성론)
	평가	•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리더의 자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 •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자질 규명 실패 • 지도자가 되기 전과 된 후의 자질이 사실상 동일한 것에 대한 설명 불가능
행태론	의의	리더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리더가 될 수 있으며, 리더십은 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조직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리더의 행태 연구(인간지향, 과업지향)
	모형	• 아이오와 대학(White & Lippitt):민주형 리더십 중시(1차원) • 미시간 대학(Likert):부하중심 리더십 중시(1차원) • 오하이오 대학:높은 조직화와 높은 배려 모두 중시(2차원) • 블레이크 & 모우튼의 관리망:인간지향과 과업지향 모두 중시(2차원)
	평가	•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의 자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 • 2개 요인분류법으로 리더십의 유형을 지나치게 단순화 함
상황론	의의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리더십의 유형 연구
	모형	타넨바움과 스미트의 상황이론, 휘들러의 상황이론, 하우스와 에반스의 경로-목표이론, 그랜과 댄저로우의 수직적 썬방관계 연결이론, 레딘의 3차원 모형, 허쉬와 브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커와 저미어의 리더십 대체물이론, 유클의 다중연결모형 등
	평가	학자마다 한두 개의 상황변수만을 편의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어 일반화 곤란
신자질론	의의	학습되는 자질을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최근의 리더십 연구(신속성론, 신특성론)
	모형	카리스마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셀프 리더십과 슈퍼 리더십, 상호연계적 리더십, 문화적 리더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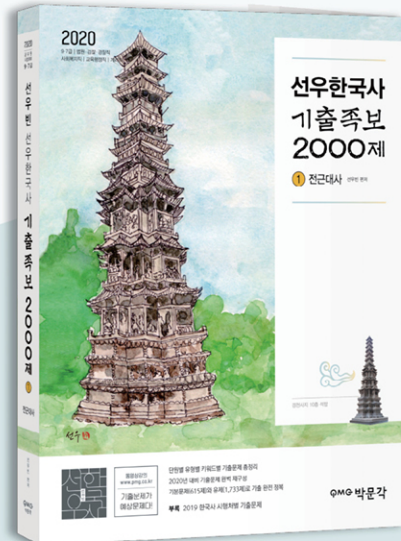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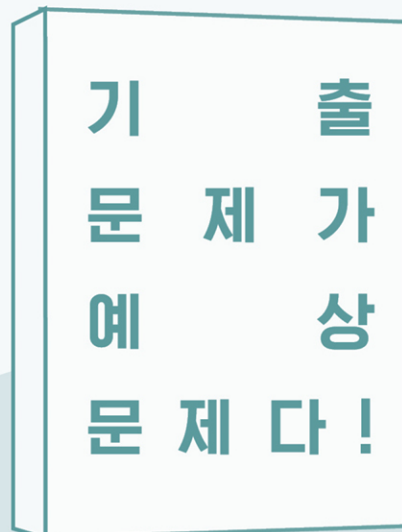
202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합격!

박문각 공무원 기출문제 시리즈



이유진 국어 기출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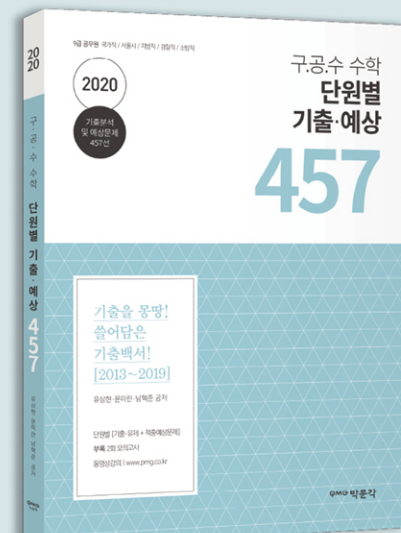
선우빈 선우한국사 기출족보



선혜국어 기출테마 문법·어휘 100



선혜국어 기출테마 독해·문학 30



구공수 수학 단원별 기출·예상 457



〈합격으로 가는 행정법〉 판례특강(6)

박두희 교수 | 박문각남부·종로고시학원

제 1편 행정법통론

테마 12. 사인의 공법행위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0.7.15.(110),1504] [17년 국가직 7급] [17년 서울시 7급] [17년 서울시 9급]

어업의 신고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면서 그 기산점을 ‘수리한 날’로 규정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까지 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한 행정청의 조치에 위반한 경우에 어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 교부한 어업신고필증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 15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산업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설사 관할관청이 어업신고를 수리하면서 공유수면 매립구역을 조업구역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외된 구역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적법한 수리가 없었던 것이 분명한 이상 그 구역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 소정의 적법한 어업신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1.1.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축) 신고불가취소】
[공2011상,427] [17년 지방직 7급] [17년 서울시 7급] [17년 서울시 9급] [16년 국가직 9급] [15년 지방직 9급]

【판시사항】

- 1]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이 그 실제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적극)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1] [다수의견]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허가의제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침해나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 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제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 2] [다수의견] 일정한 건축물에 관한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위와 같은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6.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주민등록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공2009하,1028] [19년 지방직 9급] [17년 사회복지직 9급] [17년 지방직 7급] [16년 국가직 9급] [14년 지방직 9급] [13년 국가직 7급]

【판시사항】

-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관한 심사의 범위와 대상
- 2] 무허가 건축물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한 사안에서,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1]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에 관한 제1조 및 주민등록 대상자에 관한 제6조의 규정을 고려해 보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 2] 무허가 건축물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한 사안에서,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두3554 판결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공2006.2.1.(243),186] [19년 서울시 9급] [18년 지방직 9급] [17년 지방직 7급] [17년 사회복지직 9급] [15년 국가직 7급] [15년 변호사]

【판시사항】

- 1]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가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2]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1]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

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놓고 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볼 것인지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테마 13.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제 2편 행정작용법

테마 14. 행정입법

* 대법원 2003. 10. 9. 자 2003무23 결정 【집행정지】
[공2004.2.15.(196),355] [19년 국가직 7급] [18년 국가직 9급] [17년 서울시 7급] [16년 교육행정직 9급]

【판시사항】

- 1]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2] 행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3] 행정신병 치료제를 공급하는 제약회사는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한다는 이유로 그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다룰 신청인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4]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기업의 손해가 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5] 행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한 제약회사의 경제적 손실,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 1]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2] 행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한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3] 행정신병 치료제를 공급하는 제약회사는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한다는 이유로 그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다룰 신청인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4]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 당사자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 5] 행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한 제약회사의 경제적 손실,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20 소방공무원 합격! 합격점수까지 끝장낸다!

박문각

소방직 종합반

1월7일(화) 개강소방직 단독반 최강 교수진!
소방 경력과 실무로 합격을 책임진다!**소방직 종합반 맞춤 스케줄(1-2월 단원별 문제풀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9:00 ~ 13:00	-	한국사	영어	국어	-	-	-
14:00 ~ 18:00	-	-	-	-	소방학	소방법규	-
18:40 ~ 22:10							

소방직 종합반 수강생만을 위한 특급혜택

소방복습

동영상 제공

소방종합반

전용자습실

소방종합반

사물함 제공

소방종합반

전담 관리제

**선접수 이벤트
수강료 50% 할인!**2개월 요약&기출 종합반 ~~92만원~~ → **46만원 (50% 할인)****70%** 타학원 환승 이벤트 70%할인!



검색창에서 **박문각올패스** 를 검색하세요!

2019 한국우수브랜드 평가대상
2018 대한민국 교육산업 대상
KCPBA 2017 한국소비자선호도 1위 브랜드 대상
해럴드경제 2017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 경영대상
KSCI 2016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공무원 합격을 위한 단 하나의 패스!

합격생 추천 9급 올패스

Have a good
Choice

2020 올패스 13기 한정판매 2019.12.31(화)~2020.1.16(목)



전 영역·전 강좌
무제한



합격 시
100% 환불



제한 없는
교수진



8가지
프리미엄 관리

올패스 13기 단독 이벤트

공시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만 담아 13기 구매자에게 모두 드립니다!
지금이 올패스 구매하기 가장 좋은 기회~ 잊지 마세요!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대비
『2018, 2019』 2개년 기출 모의고사

2020 박문각 공무원
**9급 공무원
최신기출
봉투모의고사**

6월

박문각 대표교수
QR해설강의

OMR
포함

BENEFIT 01 최신기출 봉투모의고사

기출문제의 중요성!

출제 경향 완벽 분석	2020 합격 대비	1등 강사진 완벽 해설	관련 이론 완벽 정리
----------------	---------------	-----------------	----------------

BENEFIT 02

적립금 최대 **50,000원**

일행 / 교행 / 회계 / 세무 / 관세 / 감사 / 교정 / 검찰 / 출입국 / 외무영사 / 전산직 / 선관위 / 고용노동부

박문각 7급팀 이론종합반

1월 6일(월)개강

수많은 선배 합격생들의 선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7급 공무원이 되기 위한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남부 7급의
검증된 교수진과 학습 시스템으로 합격을 이끌겠습니다.

상담서비스
카톡상담 TALK
※ 박문각을 검색하세요.
고용노동부
강좌 개설!



행정법 박제인 행정법 박두희 행정법 변원갑 국제법/국제정치학 윤경철 회계학 오준석 회계학 신은미 교육학 오현준 교정학 김지훈 형소법 이승준 형법 허문표 전산직 손경희 노동법 김광훈
국어 이유진 국어 전선혜 영어 김세현 영어 헤더진 한국어 선우빈 헌법 김건호 헌법/세법 이수천 헌법/국제법 이만복 경제학 함경백 경제학 김동빈 경제학 조경국 행정학 신용환 행정학 이경 행정학 이명훈

박문각 7급팀 합격시스템

시 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9:00 ~ 13:00	영 어 (김세현,헤더진)	영 어 (김세현,헤더진) 국 어 (이유진,전선혜)	국 어 (이유진,전선혜)	한국사 (선우빈)	한국사 (선우빈) 헌 법 (김건호,고영동)	헌법 (김건호,고영동) 국제정치학 (윤경철)(09:30~)	국제법 (윤경철) (09:30~)
14:00 ~ 18:00	행정학 (이명훈) 국제법 (이만복)	국제법(이만복) 자료구조론	행정법 (변원갑) (박두희) 세 법 (이명훈-주) (16:00~18:00)	행정법(변원갑) 행정법(박두희) (14:00~16:00) 경제학(김동빈) (14:00~17:00)	경제학 (김동빈) (14:00~17:00)	경제학(김동빈) (14:00~17:00) 국제정치학 (윤경철)	
18:40 ~ 22:10		경제학 (조경국)	행정법 (박제인)	행정법(박제인-주) 경제학(조경국)			

※ 동영상 제공 : 독어,불어,서반어,중국어,토익,교육학,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정보보호,교정학,형법,형소법,
행정학(신용환),회계학(신은미,오준석),노동법

※ 강의 일정은 학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합반 오퍼는 개강일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문자로 안내됩니다.

7급시험에 최적화된 합격설계 시스템!
박문각에서 만나보세요

- ! ? 공무원 수험은 첫 시작부터 끝까지 수업과 자습의
시간배분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화할 수 없을 만큼의 무리한 수업은 학습의 질과 공부
의욕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수업은 명확한 개념 이해,
그리고 복습은 최대한의 시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1회독부터 가장 효율적인 방법, 48년 전통 박문각과
함께할 이유입니다.
- ! ? 매주 진도별 테스트를 통해 복습과
문제 적용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한주간 배운 내용을 테스트를 통해 점검하고,
취약점을 분석 및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인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 ! ? 담임 멘토링 관리로 수험 생활에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노하우를 빠르게 익힙니다.
의지만큼 실천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교수님 1:1 상담 그리고, 담임 멘토링 관리를 통해
선배 합격생들의 합격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종합반 수강료
50% 할인!**

2개월 종합반
2개월 기술직

→ 80만원 → 40만원 (50% 할인)
→ 60만원 → 30만원 (5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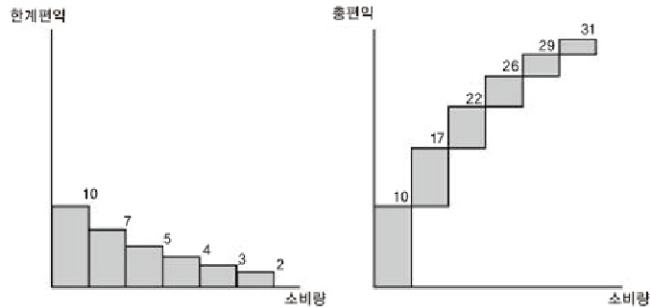
「2020년 7급 대비」
경제학 특강(4)

| 김동빈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4. 보론 : 경제수학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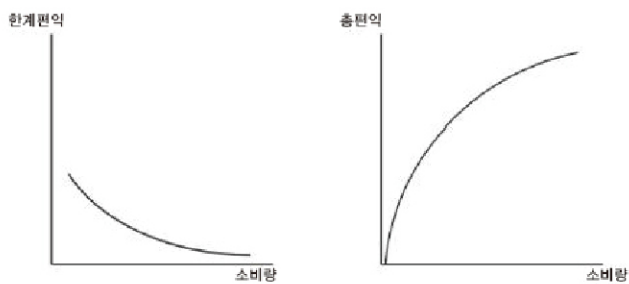
(1) 총편익과 한계편익, 총비용과 한계비용

① 앞서 2장에서 한계편익은 소비량 증가에 따라 추가되는 편익의 크기라고 하였다. 따라서 한계편익을 누적합산하면 그때까지 얻은 총편익의 크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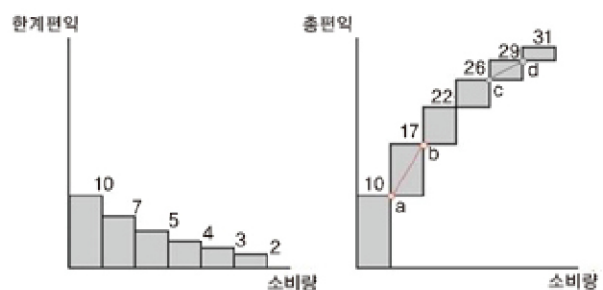
〈 그림 4-1. 한계편익과 총편익 〉

② 위 막대그래프 그림을 매끄러운 곡선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그림 4-2. 한계편익곡선과 총편익곡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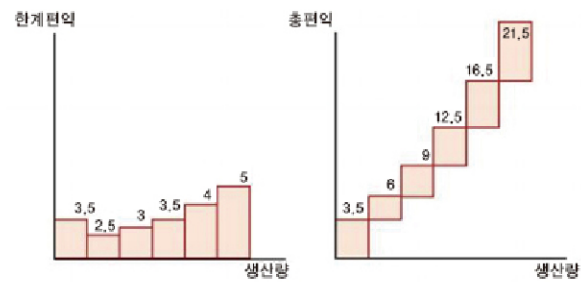
③ 여기서 총편익곡선의 기울기가 한계편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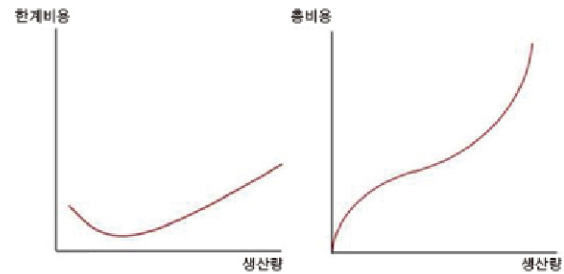
〈 그림 4-3. 한계편익곡선과 총편익곡선의 관계 〉

예를 들어 상단 우측 그림의 두 번째 재화 소비에서의 총편익 곡선의 기울기, 즉 점a와 점b 사이의 기울기는 7이다. 이는 두 번째 재화의 한계편익과 일치한다. 그리고 5번째 재화 소비에서의 총편익 곡선의 기울기, 즉 점c와 점d 사이의 기울기는 3이고 이는 5번째 재화의 한계 편익과 일치한다.

④ 이와 마찬가지로 한계비용을 누적합산하면 총비용이 되며 총비용곡선의 기울기는 한계비용이 된다.



〈 그림 4-4. 한계비용과 총비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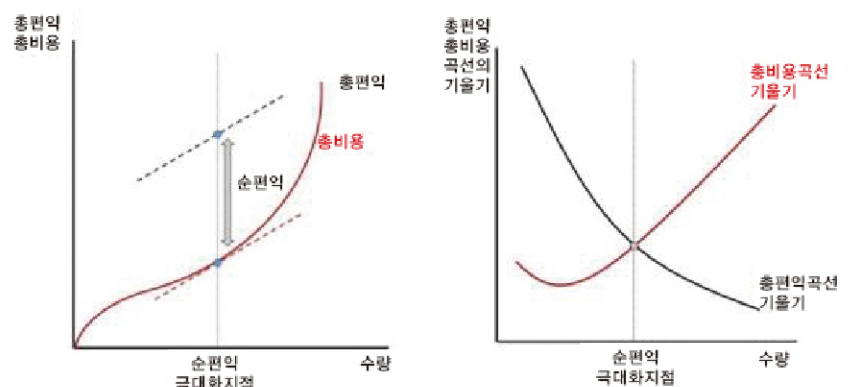
〈 그림 4-5. 한계비용곡선과 총비용곡선 〉

(2) 한계적 원리

거래량	한계편익	한계비용	총편익	총비용	순편익
0	—	—	0	0	0
1	10	3.5	10	3.5	6.5
2	7	2.5	17	6	11
3	5	3	22	9	13
4	4	3.5	26	12.5	13.5
5	3	4	29	16.5	12.5
6	2	5	31	21.5	9.5

〈 표 4-1. 한계편익과 한계비용 〉

- ① 위 편익과 비용조건에서 순편익이 가장 극대화 되는 거래량은 4이다. 이때 한계편익은 4이고 한계비용은 3.5이며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가장 가까운 거래량이다.
- ② 순편익은 아래 그림에서 총편익과 총비용 곡선의 수직의 격차가 가장 큰 지점이다. 즉 총편익곡선의 접선과 총비용곡선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는 지점이다.
- ③ 이는 곧 총편익곡선의 기울기인 한계편익과 총비용곡선의 기울기는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이 바로 순편익 극대화 지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림 4-6. 순편익 극대화 지점 〉



수험서/자격증
전문 쇼핑몰

북스파

각 종 시험 준비는 북스파와 함께하세요~!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혜택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 교원임용 / 자격증 / 외국어 / 취업 / 컴퓨터 / 수험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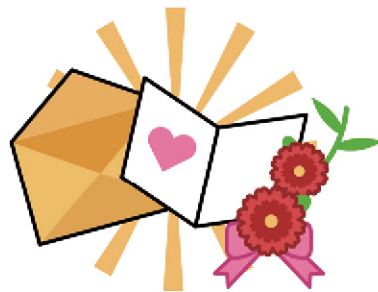
PMG 박문각북스파 www.bookspa.co.kr 문의 02)3489-9500

Human 사회복지직 제자들의 감사의 글

'Human 최종합격 제자님들의 감사의 글' 중에서 발췌 (미래가치 판)

강 숙 영 제자님

2019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최종합격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사회복지학개론만 배운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마인드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되었을 때 흔들림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공부만을 한다면 저는 굳이 선생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글에선가 선생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남을 도와주는 삶을 좋아했었다는 것을 보았고, 선생님께서 공직에 계셨을 때의 생활 태도, 퇴직한 이유의 글을 접하게 되었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도 항상 누군가를 돕는 일에 앞장서시고 저도 조금씩 기부도 참여해보면서 복지의 참다운 의미를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가 참 좋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망설임이 많았던 처음과 달리 지금은 제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선택한 것이 좋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즐거움을 느끼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들을 선생님께 더 배우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공무원 시험대비

2월 Human 사회복지학 개론 핵심요약정리

2월 5일(수) 개강

매주 수·목 14:00~18:30(1개월 완성)

교재: 2020년 Human사회복지학 개론 핵심요약 NOTE(미래가치 판)
수강료: 160,000원

진도별로 핵심내용정리-선택적·집중적·효율적 강의 진행

휴먼 장학생 OX모의고사를 통해 복습상태 점검 및 실력 강화

Human 기부금 적립

- 1) 실강 수강생 1명당 휴먼 기부금 5천원씩 적립
- 2) 인강 수강생 1명당 휴먼 기부금 3천원씩 적립

휴먼 장학금 대폭 상향(실강)

모의고사 평균 점수		공동 선물
80.0~84.9	30,000원	 휴먼상장 수여 + 뽕과 저녁식사
85.0~89.9	50,000원	
90.0~94.9	70,000원	
95.0 이상	100,000원	

Human 선생님의 깨알 선물

(실강은 매 강좌마다 지급 / 인강은 별도 안내)

- 1) 휴먼 동기부여노트
- 2) 휴먼 L홀더 2개
- 3) 휴먼 포스트잇 세트
- 4) 휴먼 3색 볼펜
- 5) 휴먼 컴퓨터용 사인펜





「2020년 시험대비」

노동법 체계를 잡는 조문 특강(3)

| 김광훈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100명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고 사유
2. 해고 예정 인원
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4. 해고 일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 등)

-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 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구제명령 등)

-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시행령 제11조(구제명령의 이행기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이하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시행령 제12조(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 ② 노동위원회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예)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시행령 제15조(이행강제금의 반환)

-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노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반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박문각



를 검색하세요.

7급·9급·공채·경채·승진 시험대비

김지훈

正道

교정학

약 력

-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졸업
- 동국대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찰학석사-형사학전공)
- 경기대 대학원 교정보호학과 박사졸업(교정학박사)
- 현)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초빙교수
- 현) 박문각공무원노랑진 교정학 전임교수



- ✓ 출제경향을 반영한 최고의 기본서
- ✓ 초보자도 볼수 있는 쉬운 서술과 포인트정리
- ✓ 교정학 단권화 기본서 표준

매월 홀수달 개강

| 일 시 | 매주 수요일-형사정책 · 매주 목요일-교정학
09:00~13:00(2개월완성)

| 교 재 | 김지훈 정도 교정학 · 형사정책(박문각)
*개강일은 박문각남부고시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김지훈의 정도교정학 따라잡기
<https://cafe.naver.com/corrections>

PMG 박문각공무원 www.pmg.co.kr

노랑진(남부고시)학원 02)815-7819, 3280-9990 온라인 02)3489-9500

경찰

2020년 경찰시험대비
가장 전략적이고 완벽한 선택
무제한T-PASS

비문각경찰 무제한 T-PASS는
원하는 교수님의 전체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교수님 강의 이용권입니다.

2020년 해양경찰 공무원 1천609명 선발한다

각 채용별 공고문 발표일 및 시험 일정 확인해야

【 2020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계획 일정 】				
구분	채용공고 발표	필기(실기)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경찰관 채용	1차 채용	2월27일	4월11일	6월10일
	2차 채용	6월11일	7월11일	9월4일
	3차 채용	9월2일	10월17일	12월9일
일반직 채용	2월27일	4월11일	6월10일	

【 2020년 해양경찰청 소속 9급 일반직 채용인원 】			
해양오염방제	채용인원	해상교통관제	채용인원
해양수산	10명	해양수산	23명
공 업	12명	방송통신	5명
환 경	13명	전 산	2명

기타(시설) 1명

2020년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계획이 발표됐다.

경찰관 선발예정인원은 총 1천 526명으로 ▲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53명 ▲순경 1천469명을 각각 채용한다.

1차 채용

1차 채용 각 분야별 선발인원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 3명 ▲헬리콥터 조종 12명 ▲공채 280명 ▲합정요원 280명 ▲해경학과 20명 ▲해상교통관제 20명 ▲구급 40명 ▲구조 70명이다.

시험 일정 등을 담은 채용 공고문은 2월27일에 발표 될 예정이다. 순경 필기시험은 4월11일에 치러지며 최종 합격자 명단은 6월10일에 공고된다.

2차 채용

2차 채용 공고문은 6월11일에 발표된다.

각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은 ▲정책소통 5명 ▲경비작전 2명 ▲항공사업 1명 ▲해양기상 1명 ▲구조 2명 ▲수사 15명 ▲홍보 6명 ▲건축 2명 ▲정보통신 11명 ▲헬리콥터 정비 25명 ▲조선 기술 5명이다.

2차 채용 필기(실기)시험 일정은 7월11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 합격자 명단은 9월4일에 발표 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채용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3차 채용 선발인원은 다음과 같다. ▲5급 공채 1명 ▲헬리콥터 조종 10

명 ▲간부후보 20명 ▲공채 286명 ▲합정요원 286명 ▲구급 42명 ▲특공(전술) 5명 ▲특공(폭발물) 10명 ▲구조 66명이다.

시험 일정은 ▲채용 공고문 발표 9월2일 ▲필기시험 10월17일 ▲최종 합격자 발표 12월9일이다.

일반직 채용

일반직 채용 인원도 공고됐다. 선발예정인원은 총 83명으로 ▲연구관 1명 ▲9급 66명 ▲임기제 16명이다.

9급 채용 인원을 살펴보면 ▲해양오염방제(해양수산) 10명 ▲해양오염방제(공업) 12명 ▲해양오염방제(환경) 13명 ▲해양교통관제(해양수산) 23명 ▲해상교통관제(방송통신) 5명 ▲해상교통관제(전산) 2명 ▲기타(시설) 1명이다.

임기제 선발 규모는 ▲5급 1명 ▲6급 8명 ▲7급 4명 ▲9급 3명을 각각 선발한다.

시험 일정은 ▲채용 공고문 발표 2월27일 ▲필기시험 4월11일 ▲최종 합격자 발표 6월10일이다.

경찰관 및 일반직 채용 세부 내용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등에 게시 예정인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2020년 시험대비 영어 1분 문제풀이 ▶

15.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ile most desert animals will drink water if confronted with it, for many of them the opportunity never comes. Yet all living things must have water, or they will expire. The herbivores find it in desert plants. The carnivores slake their thirst with the flesh and blood of living prey. One of the most remarkable adjustments, however, has been made by the tiny kangaroo rat, who not only lives without drinking but subsists on a diet of dry seeds containing about 5% free water. Like other animals, he has the ability to manufacture water in his body by a metabolic conversion of carbohydrates. But he is notable for the parsimony with which he conserves his small supply by every possible means, expending only minuscule amounts in his excreta* and through evaporation from his respiratory tract.

*excreta 배설물

- ① Survival of Desert Animals
- ② The Way the Kangaroo Rat Copes with Lack of Water
- ③ The Small Amounts of Water the Kangaroo Rat Drinks
- ④ The Effect the Environment Lacking in Water Has on Animals

16.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sociologist Glen Elder proposed that there is a sensitive period for growth—late teens through early 30s—during which failures are most beneficial. Such a pattern seems to promote the trait sometimes called equanimity. We learn that trauma is survivable, so we don't plunge too deeply following setbacks. Nor, conversely, do we soar too high on our successes. Some businesses in Silicon Valley and on Wall Street make a point of hiring ex-pro athletes to their staffs. It's not just that their high profile draws business. It's because athletes are good at recovering from their failures. "We needed people who could perform and not get emotionally attached to losses," a Chicago oil trader told the New York Times, explaining why the firm likes athletes on the trading floor, particularly in ugly economic times like these. The image is of a rider easy in the saddle*.

*saddle (말의) 안장

- ① nothing can so surprise her—either for good for ill—that she'll be knocked off.
- ② A setback in any area will mean in your mind that you're a failure categorically.
- ③ We should hope for the rider's dominant position early and often.
- ④ You could wind up in a position where success reveals itself all at once.

〈 정답 15.② 16. ① 〉

<요즘 대세 “박문각편입” 합격전략 대공개!>

2021학부모 초청 상위권편입 설명회

〈자세히보기〉

1월 18일 (토) 14시

PMG 박문각편입학원

www.pmg.co.kr

학원 02)508-4551

온라인 02)3489-9500

올패스 구매자 전원 3개월 연장권 제공!

박문각 경찰

올패스

2020년 1·2차 완/벽/대/비

1년 올패스 35만원

- 올패스 3개월 연장권 제공
- 최종합격 시 수강료 100% 환급

*제세공과금 22% 제외

박문각 경찰 올패스라서 가능한
합리적 가격, 합리적 혜택으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Special Gift

**지금 올패스 구매 시,
3개월 연장권 무료제공!**

- 6개월 올패스 구매 시 9개월 수강
- 1년 올패스 구매 시 15개월 수강

올패스 구매자
전원 제공!



박 문 각 경 찰
올 패 스 3 개
수 강 연 장 권

[수강연장권 유의사항 보기 >](#)

이벤트 세부사항은 박문각경찰온라인 www.pmg.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형사소송법 기출 및 판례 총정리(8)

| 조충환 교수 | 남부경찰온라인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08.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9급 검찰·마약수사>

- 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재판장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하며, 공판준비기일에는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검사와 변호인 이외에 배심원도 참여시켜야 한다.
- ②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에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 ④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①

09. 증거의 신청 및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9급 검찰·마약수사>

- ①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면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도 허용된다.
- ② 검사와 달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없다.
- ④ 공판심이 종결된 후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론을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①

10.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9. 9급 법원직>

- ①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② 증인이 대면 진술함에 있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상대방인 경우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문방식은 증인에 대해 인적보호조치가 취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하여도 허용될 수 있다.
- ③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는 있는데, 이때 변호인이 재정하여 피고인을 위해 증인을 상대로 반대신문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별도로 반대신문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 ④ 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 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라도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대로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면 주신문의 하지는 치유된다.

[정답] ③

11.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순경 1차>

- ㉠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있다.
- ㉡ 상호 간 폭행죄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다른 피고인의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 선서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경우, 그 선서는 무효가 되고 이후의 증인신문도 무효로 되어 증언 자체의 효력이 부정된다.
- ㉣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인신문은 증거조사의 간이화라는 취지에 따라 교호신문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 ㉤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자기부죄(自己負罪)의 강요금지라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취지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 ① ㉠,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정답] ③

12. 형사피해자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9. 9급 법원직>

-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는데,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 제한 등 적당한 조건을 붙인 재판장의 허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그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②

13.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경찰승진>

- 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 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제42조 제2항에서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권한·의무·재판절차, 그 밖에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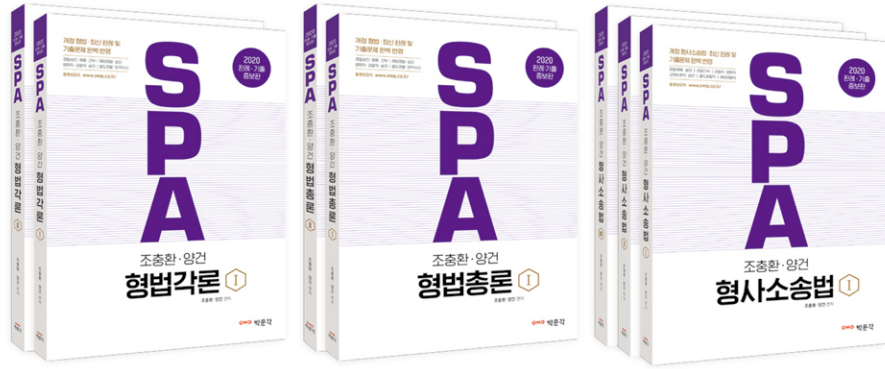
[정답] ①

14.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순경 1차>

- ①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안내받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더라도 제1심 법원의 하지는 치유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러한 제1심 법원의 소송절차상의 하지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항소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③ 배심원의 평결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야 하므로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이 배심원단을 구성한 후 공판절차를 진행한다.
- ④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정답] ②

조충환·양건 SPA & 테마 시리즈



SPA 형법·형사소송법
21년 전통
불멸의 베스트셀러!

최신 판례 + 조문 + 이론 총망라



테마 형법·형사소송법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바로 그 객관식 문제집!

각종 기출문제 + 예상문제 총정리

2020 경찰승진 대비

조충환·양건 1년 패키지

2020년 승진을 위한 필수 선택!

박문각경찰 SPA+테마 패키지

SPA 기본이론 + 객관식 테마 문제풀이	형사법 (형사소송법+형법)
	형사소송법
	형법

박문각경찰 SPA 패키지

SPA 기본이론	형사법 (형사소송법+형법)
	형사소송법
	형법

2020 승진대비

박문각경찰 승진만의 프리미엄 혜택

선행학습용 형법강의 무료제공	모바일강의 무료제공	상·하반기 최신판례 제공	온라인모의고사 5회 무료제공	교수학습 1:1문의 게시판

동영상
강의

박문각

www.pmg.co.kr

상담
문의

경찰 채용 · 승진 02-3489-9500



2019년 상반기 형법 기출문제&판례 (~2019.8.1.판례 공보까지) 총정리(8)

| 양건 교수 | 남부경찰온라인

제2편 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02. 강제추행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법원직>

- 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②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이 사립이나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여성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 ③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
- ④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는 여성인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의미에서 그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강제추행에 관한 고의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②

03.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경찰승진>

- 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 ③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한 경우, 이 행위만으로도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 ④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 이외에도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한다.

[정답] ②

04.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순경 1차>

- 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 ④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한다.

[정답] ④

제3절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01.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법원직>

- ① 피해자인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에 대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라고 말한 것은 희망 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가치판단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의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이는 명예훼손의 고의 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며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 ④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보도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러한 소문, 제3자의 말 등의 존부를 기준으로 보도가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정답] ①

02.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법원직>

- 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예외 없이 모욕죄에 해당한다.
- ② 강원도 양구군과 양구군수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③ 모욕죄의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는데, 특정한 집단을 표시한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 ④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정답] ④

03.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경찰승진>

- ① 장래의 희망이 아나운서라고 한 여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 하더라.”라는 등의 말을 한 경우,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으로서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그 자체로 성립된다.
- ②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면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 ③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가 업무처리에 항의하며 연장자인 관리소장에게 공연히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한다.
- ④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행위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광고·홍보행위가 별도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04.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경찰승진>

-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 임대인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 명의로 된 학원설립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신고를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 乙이 그 건물에서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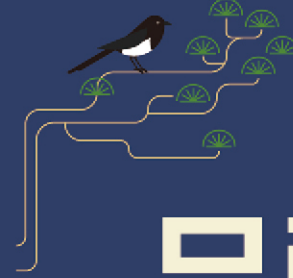
- ① ㉠(X), ㉡(X), ㉢(O), ㉣(O)
- ② ㉠(O), ㉡(X), ㉢(O), ㉣(X)
- ③ ㉠(O), ㉡(O), ㉢(X), ㉣(O)
- ④ ㉠(O), ㉡(O), ㉢(X), ㉣(X)

[정답] ④

<다음호에 계속...>

2020
새해맞이

새해



홈페이지 접수중!

무료특강

PMG 박문각경찰 학원

1.21(화) ~ 1.27(월)



형법
오상훈



형법 조문기출 O/X 정리

1.21(화) 09:00~13:00

교재 : 프린트 제공



경찰학
한상기



경찰학 두문자 특강

1.22(수) 09:00~13:00

교재 : 프린트 제공



한국사
이윤우



한국사 사료 특강

1.23(목) 09:00~13:00

교재 : 프린트 제공



영어
정일현



독해 비법 특강

1.24(금) 09:00~13:00

교재 : 프린트 제공



형사소송법
김상천



최신판례 특강

1.27(월) 14:00~18:00

교재 : 프린트 제공





2020학년도 교육학풀이 및 적중자료(3)

| 이선화 교수 | 박문각임용고시학원

◎ 5~6월 기본문제반 교재 중,

Q. 학습과 발달에 대한 보기의 관점과 그 특징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2년 5급 행정직 활용)

〈관점1〉 학습과 발달은 분리된 것이다.

발달이 학습에 선행한다. 학습은 발달에 뒤따라오며, 이미 발견된 구조를 증명하는 것이다. 학습자와 사회적 환경 간의 관계와 관련해 능동적인 학습자를 가정하고, 사회적 환경을 학습자의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관점2〉 학습과 발달은 동일하다.

발달은 전적으로 학습의 결과이다. 학습자들은 사회적 환경에서 이미 만들어진 정보를 받아들인다. 수동적인 학습자를 가정하고, 사회적 환경은 발달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관점3〉 학습이 발달을 주도한다.

학습은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습자들이 근접발달영역 내에서 과제를 교사 혹은 유능한 또래로부터 교수받는 것처럼 학습이 발달을 이끈다. 또한 능동적인 학습자와 능동적인 사회적 환경은 발달에서 협력적 관계이다.

1) 행동주의, 피아제, 비고츠키 이론은 위의 세 관점 중 각각 어느 관점과 관련되는지를 밝히고, 세 이론이 교육 현장에 주는 일반적인 시사점을 논하시오.

2) 학습자의 인지발달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교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행동주의: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 추구

피아제 학습이론: 인지적 구성주의, 내발적 인지 변화의 중요성 강조

비고츠키 학습이론: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지 변화의 중요성 강조

비고츠키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환경을 중심으로 학습과 발달을 설명, 다양하고 복합적인 교육환경의 중요성 강조, 촉진자(조력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강조, 근접발달영역의 아이디어를 통한 선행학습과 조기교육의 중요성 강조, 전통적인 정적 평가 대신 역동적 평가의 중요성 강조, 다양한 발달 수준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진 협동학습 중시, 장애인에 대한 통합 교육 강조
단점: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고려 필요

◎ 7~8월 종합문제반 교재 중

최 교사: 제시문 (다), 비고츠키

- 학습이 발달을 이끌고, 근접발달영역 내에서 과제를 협동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비고츠키의 학습이론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인간의 정신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발달되고 결정됨
- 문화의 맥락 안에서 정신적 도구가 어떻게 매개되는가에 관심
- 발달의 기제로 근접발달영역(ZPD)를 중요하게 제시, 근접발달영역 내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달이 발생함

◎ 9~11월 모의고사 강의 최종 정리 자료 중,

시험 직전 강의 시간에 정리 자료로 사회적 구성주의 확인

7) 비고츠키	피아제	인지적 구성주의/ 물리적환경과 인지구조로 발달
피아제 비교	비고츠키	사회적 구성주의/ 사회와 상호작용으로 발달/

〈 영 교육과정 〉

◎ 9~11월 모의고사 문제 중,

영 교육과정의 개념과 세부 사항을 여러 문제를 통해 확인

◆ 교육과정의 변화

A 교사는 교육과정 구성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 하였다.

“구체적인 행동목표 외에도 교육을 통해 추구할 수 있는 목표 자체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아이즈너(Eisner)가 제안한 대안적 목표유형들을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교육과정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르칠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 A 교사가 제안하는 아이즈너(Eisner)의 2가지 대안적 목표유형의 명칭과 개념을 서술하고,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명칭과 그 사례를 서술[4점]

◎ 6월 공개 모의고사 문제 중,

김 교사: 저는 교육과정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이 행복한 학교라고 하면, 일단 쉽고 재미있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 같지만, 저는 꼭 쉽기만 하다고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교육내용 자체에 재미를 느끼도록 잘 가르치면 진정으로 행복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 교과와 가장 핵심적 구조인 기본적 아이디어나 개념·원리를 교육내용의 중심으로 삼아, 배운 지식들이 새로운 문제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가르친다면 재미있으면서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과 선정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왜 중등학교에서 법학, 경제학, 인류학, 심리학과 같이 중요한 지식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몇몇 교과를, 다른 대안적인 교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그저 전통적으로 가르쳐 온 교과이므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종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하다고 입증된 교과를 가르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 김 교사가 먼저 강조한 내용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의 명칭을 쓰고, 이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방법의 명칭과 개념 제시,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되는 교육과정 명칭을 쓰고, 이러한 교육과정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1가지를 제시문에서 찾아 서술[4점]

◎ 9~11월 모의고사 강의 최종 정리 자료 중,

시험 직전 강의 시간에 정리 자료로 영 교육과정의 개념과 교육적 의의(시사점)를 확인

3. 영 교육과정

주제	키워드 포함 인출
1) 개념	-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내용 중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한 모든 교육과정(표면적 교육과정에 있어도 포함)
2) 교육적 의의	- 학교에서 소홀히 하는 교육과정 관심, 공식적 교육과정의 필요부산물로 중시

〈 중행적 조직, 중핵 교육과정 〉

전 과정을 통해 여러 문제를 통해 중핵 교육과정과 중핵적 조직의 유형을 확인

◎ 5~6월 모의고사 문제 중,

이 교사: 학생들의 흥미를 전체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탐색해야 합니다. 교육학자 듀이(J.Dewey)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매개로 한 교육과정 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듀이는 경험의 능동적 측면과 수동적 측면을 관련지으려는 노력을 학습의 중요한 원천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실행한다면 교육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가 좀 더 증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중핵 교육과정의 활용성이 높을 것입니다.

-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의 명칭을 듀이(J. Dewey)의 이론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중핵 교육과정의 개념과 중핵 교육과정의 유형을 2가지 서술 [4점]

〈 다음호에 계속 ... 〉

SINCE 1972
박문각임용고시학원
티치스파
전공

합격을 위한
**수험생 여러분의
튼튼한 길잡이**
되겠습니다.



2020학년도 특수교사 임용 시험

임 지원 특수 교육

1-3월 이해중심 특수교육학 기본이론강의 (10주)

강의 일시	강의 기간	개강-종강일	수강료
금,토 10:00~17:00	10주	1/3(금) ~ 3/7(토)	접수안내 참조

- 강의OT : 2020년 1-3월 강의소개 영상 참고(박문각 온라인)
 - 강의목적
 -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탄탄한 이론의 토대 완성 + 최신 기출경향 반영
 - 전 영역을 제대로 꼼꼼하게, 차근차근 이해하고 정리하기
 - 교재
 - 특수교육의 맥 최신개정판(2019) (총3권) 박문각 : 2018년까지 출간된 최신각론반영
 - 맥 가이드북 : 맥 교재 기반 마인드맵 교재 (학원용 제본 교재) 1-3월 강의 수강생 판매
 - 매주 영역별 퀴즈 : 매주 영역별 형성평가를 통해 학습점검
 - 스터디 운영 : 강의내용의 철저한 복습을 위한 전원 스터디 구성
 - 맞춤형 개별상담 : 강의 수강 중 상시 신청
- ★임지원 특수 교육학 카페 <http://cafe.daum.net/the-special>

[접수 안내]

- <1-3월>
□ 수강료 : 42만원
□ 사전 할인 이벤트 : ~12/31(화) 4만원 할인 (중복 적용 가능)
□ 2019년 박문각임용 기수강생(직/인강 포함) 대상 2만원 할인 (중복 적용 가능)
□ 수강생혜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특강 제 공(본 강좌에 포함)
- <1-3월 기본이론+ 3-5월 심화이론&기출분석 패키지>
□ 수강료 : 42만원 + 33만원 = 75만원 → 73만원
□ 사전 할인 이벤트 : ~12/31(화) 4만원 할인 (중복 적용 가능)
□ 2019년 박문각임용 기수강생(직/인강 포함) 대상 2만원 할인 (중복 적용 가능)
*3-5월 자세한 강의 계획은 추후 공지.



「2020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정혜영의 전문상담 모의고사(8)

| 정혜영 교수 | 박문각임용고시학원

10. [심리검사] 다음 (가), (나)는 전문상담교사인 김교사가 진주(고2, 여)에게 벤더 게슈탈트 검사(BGT)와 로샤(Rorschach Test) 검사를 실시하는 대화 내용이다. (가), (나)에서 김교사의 잘못된 반응을 찾아 각각 2가지씩 찾아 모두 바른 반응으로 고쳐 서술하시오.[4점]

(가)

김교사: (모사 단계를 실시하면서) 여기 몇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카드를 한 번에 한 장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카드에는 간단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종이에 그대로 따라서 그리십시오. 되도록 빨리 그리도록 하세요. 이 검사는 미술능력의 검사는 아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그리십시오. 용지는 이 정도입니다(카드더미를 보여준다)

진 주: 자나 지우개를 사용해도 되나요?

김교사: 자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지우개는 사용해도 됩니다.

진 주: (김교사가 세로로 제시한 종이를 가로로 놓고 그린다)

김교사: (진주의 종이를 다시 세로로 돌려놓는다) 이렇게 놓고 그리세요.

진 주: (다시 종이를 가로로 돌려놓는다)

김교사: (진주의 종이를 다시 세로로 돌려놓는다) 가로로 놓고 그리면 안됩니다.

진 주: 도형을 종이 가운데부터 그려야 하나요?

김교사: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나)

김교사: (연상단계에서 첫 번째 카드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진 주: 잉크 불룩처럼요.

김교사: 이 카드에서 어떠한 형태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입니까?

진 주: 저를 무섭게 쏘아보면서 이빨을 드러내는 악마의 얼굴이 보이네요. (침묵) 더 해야 하나요?

김교사: 좀 더 충분히게 보도록 합시다. 제 생각에 당신이 좀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 주: 다른 사람들도 여러 개로 반응하나요?

김교사: 네. 대부분 한 개 이상 대답 합니다.

진 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김교사: (두 번째 카드를 제시하면서) 무엇으로 보입니까?

진 주: (.....) 정말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데요.

김교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개 이상 대답 합니다. 떠올려 보세요.

10. 정답 : (가) 되도록 빨리 그리도록 하세요라고 말한 것은 잘못되었다. 빨리 그리든 천천히 그리든 상관없습니다라고 반응해야 한다. / 진주가 두 번째로 종이를 가로로 돌려놓았을 때 다시 세로로 돌려놓고 가로로 놓고 그리면 안됩니다라고 말한 것은 잘못되었다. 한 번 이상 고쳐주지 않는다. (나) 이 카드에 어떠한 형태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잘못되었다. “네, 잉크로 만든 카드예요. 그것이 무엇처럼 보이는지 말해주길 바랍니다.”라고 답변해야 한다. / 두 번째 카드에서 연상을 실패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개 이상 대답을 합니다. 떠올려 보세요.”라고 말한 것은 잘못되었다. 첫 번째 카드나 두 번째 카드에서 연상을 실패하면 검사를 중지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한 뒤 계속 저항을 하면 검사를 중단해야 한다.

해설 : 각 1점

1) 실시지침

- ① 자극카드가 보이지 않게 차례로 얹어두고 A도형 부터 차례로 도형 8까지 제시한다.
- ② 모사용지는 여러 장을 준비해 피검자가 원하면 더 사용할 수 있다.
- ③ 모사용지는 세로로 제시한다.
- ④ 모사 시 보조도구 사용은 금한다.
- ⑤ “여기에 몇 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당신이 보이는 대로 이것을 그리세요.”라고 말을 하고, 제시 내용에 외의 질문에는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라고 반응한다.
- ⑥ 피검자가 모르게 전체 반응시간을 측정한다.

2) 일반적인 실시 방법

- ① 이하 제시되는 6가지 방법들은 필요에 따라서 임의로 채택되어 쓰이게 된다.
- ②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피검자에게는 ‘모사’ 단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변용모사 단계, 연상 단계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변용 모사 단계(정교화 단계)와 연상 단계에서 피검자의 성격적 특성과 역동적인 면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③ 기질적인 손상이 의심되는 피검자들에게는 순간노출 단계를 먼저 실시한 뒤 모사 단계, 회상 단계의 순으로 실시한다.
- ④ 모사단계(copy phase): 피검자에게 모사할 용지, 연필, 지우개를 주고 9매의 BGT 카드를 책상 위에 얹어둔 뒤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카드를 가리키면서) 지금부터 이 카드를 한 번에 한 장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카드에는 간단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종이에 그대로 따라서 그리십시오. 빨리 그리든 천천히 그리든 상관없습니다. 이 검사는 미술능력의 검사는 아니지만 될 수 있는대로 정확하게 그리십시오.”

- ⑤ 종이사용은 자유롭게 놓아둠 → 1장을 사용하든 여러 장을 사용하든 용지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든 전체를 사용하든 전적으로 피검자가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용지는 이정도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보여줌 → 장 수를 말하지 말고 손에 쥐고 있거나 놓아둔 카드더미를 보여 주기만 해야 한다.
- ⑦ 종이는 세로로 제시. → 세로로 제시한 종이를 가로로 놓고 그리려 한다면 한번은 세로로 놓아주고 “이렇게 놓고 그려라”고 하나 그 이상은 고쳐 주지 않는다.
- ⑧ 연필과 지우개 사용에 관한 것 → 연필심은 중간 정도의 부드러운 것으로 택하여 필압이 어떤지를 잘 관찰하여 나중에 검사를 해석할 때 자료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지우개를 사용하는 것은 피검자의 자유이며 이에 대한 것도 관찰하여 기록해 둬서 검사 해석에 보조적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⑨ 검사 진행시 피검자의 검사 행동은 상당히 중요한 정보이므로 피검자의 검사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잘 기록해 놓고 중간 중간 피검자의 질문이나 말도 기록해 놓아 검사 해석시에 적용한다.

3) 지시(연상단계)

- ① 지시가 달라짐에 따라 반응의 수는 물론 반응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반드시 표준방식에 따라야 한다.
- ② 첫 번째 카드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또는 “이것이 무엇입니까?”라고만 한다. 자유연상단계(연상단계).
- ③ 만약 피검자가 이러한 지시에 대해 “그건 잉크불룩처럼 보여요.”라고 응답한다면 검사자는 “그래요. 이걸 잉크로 만든 카드예요. 그것이 무엇처럼 보이는지를 말해주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한다.
- ④ 피검자가 I 번 카드에서 단지 한 개의 반응만을 하는 경우 검사자는 카드 I 에 한하여 “좀 더 충분히게 보도록 합시다. 내 생각에는 당신이 좀더 볼 수 있을 것 같군요.”라고 격려한다.
- ⑤ 만약 피검자가 I 번 카드에서 2개, 3개 반응을 하고 나서 몇 개나 반응을 해야하는지 물을 경우 “그건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라고 응답한다.
- ⑥ 피검자가 I 번 카드나 II 번 카드에서 아무 것도 볼 수 없다고 거절한다면 적절한 관계형성에 실패했거나 피검자가 검사 시행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검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일단 검사를 중지하고 피검자와 함께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계속 저항하면 검사 중단.
- ⑦ 피검자가 몇 개 카드에 적절히 반응하다가 반응 거부하는 경우: 충분한 격려 후 다시 반응하도록 도와준다.

4) 피검자의 질문에 응답하기

- ① 피검자의 질문에 대한 원칙은 가능한 비지시적으로 짧게 응답.
- ② 돌려봐도 되느냐고 묻는다면 “편한대로 하십시오.”, “그건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로 응답.
- ③ 다른 사람들은 몇 개나 반응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한 개 이상의 대답을 합니다.”로 응답.
- ④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묻는다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로 응답.
- ⑤ 이 검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피검자가 검사를 받는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응답. 상담 현장이면 “당신의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방법입니다.”로 응답.

전년대비 출원인원 약 1천 6백 명 증가! 전문직 시험의 대세 공인노무사

UPGRADE & PERFECT 박문각 노무사

< 2차 전과목 신규강사 전격입성 기념 > 홈페이지에서 입문특강을 무료신청 하세요!

PMG 박문각노무사

www.pmg.co.kr

종로학원 02)734-8082

온라인 02)3489-9500

SINCE 1972
박문각임용고시학원
티치스파
전공

합격을 위한
수험생 여러분의
튼튼한 길잡이
되겠습니다.



KORea Special Education Teacher : KORSET

2021학년도 교원임용 시험대비

김남진 특수교육학

[1~2월] 기본이론 I

강의 일시	강의 기간	개강-종강일	수강료
수 14:00~18:00 목 10:00~14:00 목 형성평가09:00~09:20 해설:09:30~09:50	8주	1/8(수) ~2/27(목)	접수안내 참조

〈2020년 김남진 특수교육학 수강생 혜택 강의(자세한 일정 추후 공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4월)
- 특수교육 교육과정(5월)
- 유·초등 교직논술(8월)

〈교재〉 김남진 특수교육학 (박문각, 2020)

〈강의 내용〉

1-2월 특수교육학 전반에 걸친 기본개념 습득1

* 행동지원, 통합교육 및 관련 각론

[접수 안내]	〈1-2월 기본이론 I 수강료〉 23만원 〈1-4월 기본이론 I +기본이론 II 수강료〉 46만원 → 42만원 • 12/18(수) 14:00~15:00 합격 전략 설명회 참석시 1-2월 직강 또는 1-4월 직강 4만원 할인 쿠폰 증정 (사용기간: ~1/15(수)까지)
---------	--

구분	강의명	내용
1~2월	기본이론 I	- 특수교육학 전반에 걸친 기본개념 습득1 행동지원, 통합교육 및 관련 각론
3~4월	기본이론 II	- 특수교육학 전반에 걸친 기본개념 습득2 특수교육공학 및 관련 각론
5~6월	심화과정 I	- 기본이론 I 영역 복습 및 정리 - 기본이론 I 영역 심화 - 기본이론 I 영역 기출문제 풀이 및 분석
7~8월	심화과정 II	- 기본이론 II 영역 복습 및 정리 - 기본이론 II 영역 심화 - 기본이론 II 영역 기출문제 풀이 및 분석
9월	영역별 문제풀이	기출문제 변형 문제풀이
10월	유·초등 실전 모의고사	유·초등특수 실전 모의고사
11월	중등 실전 모의고사	- 중등특수 실전 모의고사
12월	2차 대비	- 2차 임용고사 대비 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특강 (2020년 김남진 특수교육학 기수강생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4월) • 특수교육 교육과정(5월) • 유·초등 교직논술(8월)	

제 30회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A형) 기출문제 정답(3)

30.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독지가의 기부로 인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 ③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입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 ④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인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한 경우
-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정답] ⑤

31.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ㄴ. 분리와세대상 토지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정답] ③

32.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 ④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
-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정답] ⑤

33.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 ②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③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정답] ④

3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 ③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 ⑤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종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35.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상업용 건물: 100분의 40
- ②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40

- ③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00분의 50
-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토지(지정지역에 있지 않음): 100분의 16
- ⑤ 미등기건물(미등기양도제외 자산 아님): 100분의 70

[정답] 전항 정답

36.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②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③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개별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개별 공시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단, 지가 급등 지역 아님)
-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 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정답] ④

37.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2019년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乙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 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 ①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 ②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PMG
박문각 고시학원

NO.1 꿈이 수험생님 방로 앞에 있습니다.

최고의 교수진 최고의 학원

합격! 그 이상의 가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박문각!

자격증 취득도 중요하지만 자격증 활용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어디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맞춤형 선택수업!!**

2019 박문각 공인중개사 합격자 모임

시학인 학습으로 새로워진 박문각이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연간회원 대모집

31회 신규 수강생
정가 389만원
파격할인!

30회 본원 수강생
정가 389만원
파격할인!

수강기간: 등록일부부터 ~ 2020년 8월 말일까지
접수기간: **선착순 50명** 마감

연간회원 특별혜택

- 2020년 도서출판 박문각 기본서 1차 2차
- 2020년 동영상 이론강의 제공 (PC + 모바일)
- MP3녹음강의 제공
- 제31회 합격관리 프로그램 합격 플래너 제공
- 개인사물함 제공 (보증금 1만원 별도)
- 공인중개사 핵심용어사전 제공
-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집 제공
- 공인중개사 합격설명서 제공
- 2020년 전국모의고사 제공

PMG 박문각 고시학원 상담문의 **02-3476-3670**

제31회

절대합격! 무조건 합격! 박문각강남만 믿고 따라 오세요!

공인중개사 시험

개강 1/2(목) 국내 유일의 맞춤형 선택수업

월 | 세 법

화 | 학개론

수 | 공 법

목 | 중개사법

금 | 민 법

토 | 공시법

01월 기본이론과정 개강 **각 과목별 맞춤형 선택수업**

오전반 개강: 1월 2일(목) 8주과정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0교시 09:20~09:40	세법 (~12:30)	부동산학개론	공법	중개사법	민법	공시법 (~12:30)
수업 09:40~10:30	하현진	김백중	배문환	신정환	김정호	박윤모
교수진	정석진	박성호	최성진	고형석	김덕수	임의섭

야간반 개강: 1월 2일(목) 8주과정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0교시 18:30~18:45	세법 (~22:00)	부동산학개론	공법	중개사법	민법	공시법 (주·야간반)
수업 18:45~22:10	하현진	박성호	배문환	고형석	김정호	박윤모
교수진	정석진	박성호	배문환	고형석	김정호	임의섭

※교재: 도서출판 박문각 기본서

제31회 공인중개사 합격 프로그램

프로그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오전반 (총수업)	기초입문	기본이론	정규이론 (기본서+AI요약서)	심화이론 (기본서+AI요약서)	핵심이론 (기본서+AI요약서)	최종집계 100선	동형 모의고사					
야간반 (총수업)	기초입문	기본이론	정규이론 (기본서+AI요약서)	심화이론 (기본서+AI요약서)	핵심+문풀 (기본서+AI요약서)	최종집계 100선	동형 모의고사					
오후반			기출문제	단원별예상문제	단원별 동형모의고사							
특강반					과목별 테마특강							
모의고사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2020년 제31회 시험대비

공인중개사

합격플랜

명강사 명품강의 수강생이 말하는 합격의 비결을 선택한다 *****

1월 2일(목) 개강

상가계약실무과정(1/6 개강)

합격플랜 시험설명회

1월 21일(화) 오후 3시

1월 29일(수) 오후 3시

설명회 사전예약 접수(종착되지 않음)

공인중개사
pmg.co.kr
동명상강의

보통가족

보통정 중개사 수강료 지원

내한민국 수험생들의 새로운 선택지인 KT 플러TV 879만에서 시작됩니다. 본 학원 강사 전원 출강!

2020년 프리미엄연간회원 모집 (선착순 50명)

공인중개사 합격선배가 추천하는 학원

수강료 파격할인 이벤트 진행중!

- 3명 이상 동시등록시 수강료 할인
- 2019년 30회 시험응시자 할인
- 박문각 선배합격자 추천소속 등록시 할인
- 2020년 박문각 올패스 평생회원권 할인
- 다학원 수강 후 재등록시 할인

2020년 프리미엄연간회원 특별혜택

- 수강기간: 2020년 1월 ~ 2020년 8월
- 강의자료: 입문과정, 기본이론, 심화이론, 핵심요약, 문제풀이
- 중학반 339만원 → 169만원 (과제할인 2만원)
- 2차반 279만원 → 149만원 (과제할인 2만원)

2020년 프리미엄연간회원 특별혜택

- 시험인강자료 제공
- 2020년 박문각 신간 12종 학습자료
- 2020년 박문각 신간 12종 기본서
- 동명상강의 11명 교수진
- 공인중개사 기본서 11명 교수진
- 개인사물함 무료제공
- 가운뎃길 학습법 합격전략 강사특강
- 학식도이제 제공

다우만아~

PMG 박문각종로고시학원 **친절상담 02)733-2288**

지하철 1호선, 3호선, 5호선 종로3가역 국립관립빌딩 3층 3관

합격의 영광을 안겨드리겠습니다!
그 명성 그대로 **종로박문각**이 책임지겠습니다.

1월 이론반

개강: 1월 2일(수) 2개월 완성

주간반(맞춤형강사선택) / 야간반

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과 목

부동산공법

민법 및 민특법

부동산세법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법

주간 10:00~13:50 (맞춤형강사선택)

박혁중 교수

김덕수 교수

이혁 교수

김백중 교수

박윤모 교수

최성진 교수

수·금 10:00~13:00

최성진 교수

민석기 교수

정석진 교수

이명섭 교수

양진영 교수

신정환 교수

야간 18:40~22:30

박혁중 교수

민석기 교수

이혁 교수

이명섭 교수

양진영 교수

주야합반 10:00~13:50

수강료 안내

■ 1, 2차 중학이론반: 1개월 270,000원 / 2개월(10%) 486,000원 ■ 1차: 1개월 180,000원 / 2개월(10%) 324,000원 ■ 2차: 1개월 230,000원 / 2개월(10%) 414,000원

2020년 공인중개사 합격 커리큘럼

시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론 강의	기초이론 강의	개념이론 강의	심화이론 강의	핵심이론 강의	핵심이론 강의	핵심이론 강의	핵심이론 강의	핵심이론 강의	핵심이론 강의	핵심이론 강의
문제풀이			기술문제풀이 (문제풀이 문제풀이)	단원별 동형 모의고사 문제풀이 연습문제	단원별 동형 모의고사 문제풀이 연습문제	단원별 동형 모의고사 문제풀이 연습문제	단원별 동형 모의고사 문제풀이 연습문제	단원별 동형 모의고사 문제풀이 연습문제	단원별 동형 모의고사 문제풀이 연습문제	단원별 동형 모의고사 문제풀이 연습문제
특강				중요과목 테마특강	중요과목 테마특강	중요과목 테마특강	중요과목 테마특강	중요과목 테마특강	중요과목 테마특강	중요과목 테마특강
박문각모의고사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 강의일정은 수업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③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천5백만원이다.
- ④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5천만원이다.
- ⑤ 甲이 X토지와 증여가액(시가) 2억원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자산을 함께 乙에게 부담부증여하였다면 乙이 인수한 채무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X토지에 대한 양도로 본다.

[정답] ⑤

38.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에 있는 농지(환지에정지 아님)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이 4분의 1 이하이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 ③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단, 농지는 도시지역 외에 있

으며, 소유기간 중 재촌과 자경에 변동이 없고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음)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단,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은 없음)
- 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의 판정은 소득세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정답] ④

39.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 ① 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 ② 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③ 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 ⑤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정답] ④

40.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④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400만원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①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대비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합격을 위한 총정리

신경의 독한 지옥만
암기장 & O,X 특강

인법	설신재	회계원리	김양수	회계원리	신은미	시설개론	신명	관계법규	조민수	관리실무	박성진
민법 합격을 앞당기는 KEY가 되다	명쾌한 정답을 도출하는 전략 회계	들을수록 답이 보이는 FINE 회계	16년 강의 경력과 열정으로 완성	쉽고 체계적인 집중 요약의 달인	관리실무의 맥과 흐름을 잡는 강의						

강의시간표

* 사정에 따라 수업시간 및 동영상 업데이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과목	관계법규	민법	시설개론	회계원리	관리실무	시설/회계/민법 (3주1번)
교수	조민수	설신재	신명	신은미/김양수	박성진	순환제 수업
주간	09:30~13:30	09:30~13:30	09:30~13:30	09:30~13:30	09:30~13:00	09:30~13:00
야간	19:00~22:30	19:00~22:40	19:00~22:40	19:00~22:40	19:00~22:40	(회계-김양수) 14:30~18:30
업데이트	주간반은 당일 오후(20시 이전), 야간반은 다음날 오전(12시 이전)					월요일

일시	과목	강의시간	수강료	
1월15일(수)부터 7회 진행	민법	14:30 ~16:00	100,000원	50%할인 50,000원

신청기간 : 1월8일 ~

교재 : 프린트제공 동영상 : 시험때까지

PMG 노량진 박문각

www.pmg.co.kr

주택관리사학원 T. 812-6616

2020년 공인중개사 합격의 그날까지 2020올패스

비.교.불.허

‘비교’라는 표현은 상대가 있을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따라 할 수는 있지만, 따라올 수 없습니다!!

수 많은 합격생이 증명하는 박문각 올패스 합격 SOLUTION

내 강의는 내가 고른다



29명
공인중개사 전문 교수진

합격생이 증명하는 커리큘럼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업계최다 9단계 과정

1회부터 함께한 박문각만의 합격노하우,
온라인 학습관리 프로그램



합격자 선배들이 증명하는 박문각 올패스의 콘텐츠 파워!

* 개인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



29회 합격생 정O울

세 아이 키우며 한 번에 동차 합격했어요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믿고 따라가면 할 수 있다.
끝까지 힘이 되는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28회 합격생 김O정

남편은 27회, 나는 28회 박문각 합격생

먼저 박문각으로 시작한 남편의 추천으로
고민할 새 없이 시작한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5개월만에 동차합격!

이것저것 벌리지 말고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자!

이렇게 접한 박문각 인강에 집중해서 결국은
만족할 정도의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29회 합격생 홍O영

65세 인강 할매, 4개월 만에 1차 합격

시키는 대로 해보자 하고... 시작했지요.

동그라미 밑정, 익힘장 이하 개념 익힘장들.
특히 얼마처럼 알려주신 시험 요령...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8회 합격생 박O준

직장 병행하면서 한 번에 동차 합격!!

아무런 정보 없이 박문각 커리큘럼에
맞춰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엔 강의 따라 가기 비뻤지만,
점차 이해가 되었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
저절로 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공인중개사 합격! 박문각 올패스 하나면 충분합니다.

N수생의 합격 실력완성!

박문각 AI 확인학습 FINAL 복습관리반

과목별 최정예 교수진의
출제 포인트 Final

2개월 후
합격 실력
완성!

혁신적 자기주도 학습 솔루션
AI 확인학습

**빠른 약점발견과
확실한 보완으로
빈틈없는 실력완성!**

공무원 3% 합격률을 넘어설 확실한 선택,
박문각 AI 확인학습반입니다.

과목별 최정예 교수진



진도별 Final 체크

학습효과 극대화



전용 교재와 학습펜

교수진 1:1 관리



교수 밀착 복습 관리

PMG 박문각공무원

www.pmg.co.kr | 노량진(남부고시) 학원 02)815-7819

자세한 사항은 박문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